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2월 20일 수요일(주간) 제 357 호



법석 조대 **인환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우리 속엔 이미 부처님과 중생, 한마음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한마음 밝은 것을 지금 쓰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갖 번뇌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엄장을 소멸하는 수행법 가운데 참선이야 말로 가장 수승한 방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8·9면

뉴스속 뉴스 news in news

동국대 '전통사경' 강좌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이 '전통사경(傳統寫經)' 강좌를 마련하고 3월4일 개강한다. 사경의 개요와 역사에서부터 〈금강경〉 〈천수경〉 사경에 이르기까지 1년 과정으로 마련된 '전통사경' 강좌는 대학에 사경 강좌가 처음 설치됐다는 점 외에도 사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근 들어 사경이 불자들의 수행의 한 방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동국대 사회교육원의 사경강좌도 이런 흐름에 맞춰 마련된 것이다. 참선과 염불이 주류를 이뤘던 신행풍토에 사경이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다. 경전을 통해 불교 가르침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불자들의 욕구가 늘고 있고, 사찰이나 불교대학, 신행단체들이 사경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관음사나 통도사 부산포교원 같이 도심포교에 주력하고 있는 사찰들은 불자들이 사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고, 동산불교대학은 '나무아미타불'을 10만8천번 사경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공주 정토선원이나 부산 법화정사 등 많은 사찰들이 정기적으로 사경법회를 열고 있으며, 종립 진선여중은 2년 전부터 교내 사경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사경법회를 여는 '이수트라(www.esutra.org)'가 개설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사경도 활발하다.

신라 때는 한 자 쓰고 한 번 절하는 '일자일배(一字一拜)'가 신앙의식으로 자리 잡았고, 고려 때는 명종이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염원하기 위해 궁궐에 사경원을 설치하는 등 호국의 방편으로 사경이 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글자를 옮겨 쓰는데 만족하거나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해서는 안된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은 "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수행"이라고 강조하고 "그런만큼 글자는 반드시 정자로 써야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최소한 시작 전과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합장 삼배를 하는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취재 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사찰 납골당

1. 사찰 납골당에 자신이나 가족의 유해를 안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2. 있다면 그 이유는?
   ①극락왕생을 기원 ②제사 모시기가 편해서
   ③선산 등 마땅한 곳이 없어서 ④기타
3. 없다면 그 이유는?
   ①매장을 선호하므로 ②가족들의 반대
   ③사찰 납골당이 비싼 편이어서 ④기타

설문 참여: 2월 2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8호 9면에 싣습니다.



내원사 비구니스님들 국토순례 회향식

'천성산살리기'를 발원하며 1월 22일 부산역 광장을 출발한 양산 내원사 다섯 비구니스님들(왼쪽)이 25일간의 대장정 도보순례를 마치고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회향했다. '천성산살리기 국토순례 보고대회'를 가진 이날 회향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통도사, 조계사, 범어사 등에서 온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해 사찰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연대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 고영배 기자

사찰환경보호기구 내달 발족

분쟁 관련 사찰·시민단체들 월내 합동회의 개최

최근 환경 분쟁을 겪고 있는 범어사, 회룡사, 내원사, 조계사, 미륵사 등 관련사찰들과 조계종 총무원이 사찰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불교 환경대책기구를 결성한다.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천성산살리기 국토순례단' 회향법회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 및 범어사 회룡사 내원사 미륵사 조계사 해인사 통도사 신흥사 관계자들은 종단차원의 불교 환경공동대책기구를 3월중 발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환경분쟁 중인 사찰과 시민환경운동단체 및 교구본사급 사찰들이 참석하는 환경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불교 공동대책기구는 △사찰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 마련 △환경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와 환경정책 수립 △환경문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북한산 금정산 천성산 미륵산 등에서 발생한 환경현안은 물론 사찰 수행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불교 환경공동대책기구 발족은 개별 사찰이나 시민환경단체의 역량만으로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로부터 사찰환경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실제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종교연대'는 1월 31일 의정부 지원의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공사 '방해금지' 명령에 따라 지난 6일 송추 농성장에서 철수했고, 금정산 범어사와 천성산 내원사의 고속철도 건설반대 운동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영 용화사의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운동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서울 조계사도 인근 고층빌딩 건축과 관련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불교환경대책기구가 발족할 경우, 공동대책기구가 종단 내에 설치됨으로써 전국적인 단위에서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공동 대응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올해 예정된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 환경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환경정책 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유산 기자

군포교활성화 심포지엄
군불교위 대전 수국사서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스님)는 3월 1~2일 군법당 대전 수국사에서 '군포교 활성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창립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군불교위원회는 군포교 현실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장성급 및 영관급 장교가 대거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군불교 신도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포교방안을 마련하고, 주5일 근무 시행이후 군종활동 방향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북미경색 대화로 풀어야"

정대 스님 청와대 오찬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마련한 각계원로 초청 청와대 오찬에 참석, "대화를 통해 북미경색관계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서 정대스님은 "미국의 발언(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이 시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다"며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관계가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정공법으로, 성의 있게 북미경색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미갈등'을 풀기위한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관람료 반환 판결 불복
천은사, 대법원 상고

지리산 천은사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통과했을 뿐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할 뜻이나 실제 관람행위도 없었으므로 관람료 일부를 돌려 주라'는 서울지법 민사항소 10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천은사는 6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단순도로 통과자라도 경내도로를 이용한 것은 관람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관람자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좁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도 "천은사 도로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통도로라는 점을 간과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불심투혼 금·은메달 획득 15면
설연휴로 이번호 16면 발행

현대불교 지사모집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사업을 함께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1. 모집 지역(8개 지역)
   - 강원북부 : 춘천, 홍원, 양구, 화천, 횡천 일원
   - 강원남부 : 원주, 정선, 영월, 평창 일원
   - 경기북부 : 포천, 연천, 동두천, 파주 일원
   - 경기남부 : 안산, 화성, 용인, 안성 일원
   - 충북 : 충주, 청주, 제천, 음성, 진천, 괴산 일원
   - 충남 : 대전 및 서산, 아산, 당진, 예산, 청양 일원
   - 경북 : 영주, 문경, 상주 일원 / 경남 :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일원
   - 전남 : 순천, 여수 일원 / 제주 전역
2. 포교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3.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스님, 단체장),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사진 2매
   - 제출기한 : 2002년 2월 23일(토)
   - 제출방법 : 우편(23일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4. 제출처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직통전화 : 02)737-0090 대표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방부 공고

유구(悠久)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강원에서는 수많은 고승석덕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시대를 이끌어 갈 참 스님을 배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 편입생 방부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학과

· 치문과 : OO명 · 사집과 : OO명 · 사교과 : OO명
(편입학, 사미과 수료증 및 전학증 지참)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2. 승적사본(총무원발급)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발급)
5. 은사스님 추천서(각 2부)
6. 사진 4매(사미의재 대가사 복장)
7. 입학금(지객스님께 문의바람)



불기 2546년 2월 일

전형방법

· 서류접수기간 : 2002년 양력 2월 12일 ~ 4월 17일까지
·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접수 당일날

22기 행자교육 수료자

· 서류접수 : 2002년 양력 4월 11일 ~ 4월 22일까지
· 면 접 : 서류접수 당일 날

■ 문의처 : 055)384-2035 (지객스님, 원통방)
055)383-2363 (강원, 감로당)
055)382-7182 (종무소 교무국)

통도사 승가대학 주지 현문 강주 중산 혜남

사 설

폐사지 관리대책 세워야

대법원의 '심곡사지 국가 소유' 판결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그동안 사법부에서 폐사지에 대한 불교종단의 소유권 계승을 대부분 인정해 주었던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아함을 감출 수 없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 있던 심곡사는 고려 때 도선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그 역사성과 함께 거찰로서의 문화적 가치만으로도 예사롭지 않은 터전이었음을 알게 한다. 6.25 전쟁에 소실된 이후 군사작전 보호구역 안에 편입,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찰 자체를 임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폐허의 유물들을 거두어 보관했던 곳이 현재의 심곡사다. 이미 조계종에서도 이를 옛 심곡사와 동일한 사찰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옛 절과 현 심곡사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해석에는 무리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또 하나의 심곡사지 소유에 관한 상고심도 우려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심곡사를 포함, 조계종단에서의 대처방안에 적지 않은 허점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그 허점들을 찾아내, 폐사지 등의 종단 망실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자 한다.

조계종에서는 전국 3천2백여 곳의 폐사지를 파악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이의 현장조사나 사지관리에는 소홀하다. 종단은 전국 본 말사를 움직여 하루 빨리 교구 내 폐사지들을 조사 관리토록 하고, 재산관리인 지정과 함께 종단차원의 소유자 복구 신청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모든 폐사지의 소유권은 불교종단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곳은 이 땅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며 그 숨결을 살리는 데는 불교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붉은악마' 명칭변경 공청회

종교계는 국가대표 축구팀 응원단 '붉은 악마'의 명칭변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붉은 악마'라는 명칭은 1997년 공모를 통해 채택된 응원단 이름으로서,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세계4강에 진출하자 외국언론들이 '붉은 악령'이라고 대서특필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종교계는 축구팀 응원단 명칭 변경을 위해 18일 '붉은 악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공청회에는 불교, 천주고, 개신교의 성직자는 물론 학계, 경실련 등에서도 참석키로 했다고 한다.

공청회를 주관하는 쪽에선 "악마라는 용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말해 공청회 결과에 따라선 명칭변경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붉은 악마' 측은 아직까지 명칭변경을 논의해 본 적이 없다면서, 논의하더라도 회원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경우 논쟁만 하다 마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더 험악한 의미의 명칭을 가진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바꿀 필요가 없고, 또 월드컵 대회 개최가 촉박했음을 이유로 '붉은 악마'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없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번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향후 국가대표 축구팀 응원단의 활약도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점에서 차제에 심도있게 논의,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신행단체들 침체 심각하다

회원줄고 노령화 겹쳐, 20~30대 20% 밑돌아

청소년불자들 영입 촉진책 필요

변화부응 포교전략 등 다양화 시급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신행단체들의 침체가 갈수록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삼보회, 대원회, 구도회, 불일회, 달마회 등 70~80년대 재가 신행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들이 회원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64년 창립돼 도심 포교와 재가불자들의 신행을 이끌었던 삼보회는 80년대 1천여명에 이르던 회원이 현재 1백여명으로 감소하고, 회원들의 주요 연령층이 50~60대로 노령화됐다. 대원회도 90년대 이후 회원이 급감해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회원수가 1백여명에 불과하고, 20~30대 회원은 20%를 밑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회·학생회는 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구도회와 달마회, 보림회도 이들 신행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의 침체현상은 재가불자들의 신행행태가 사찰 신도회, 직장 불교회 등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 단순한 법회와 단조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행단체가 재가불자들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불자들의 사회봉사 및 환경운동 등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불교NGO가 다수 결성되는 상황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전통적인 신행단체들의 현격한 활동력 저하는 회원들의 노령화와 청년층의 부재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70~80년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두드러졌으나 불교 신행단체들의 사회참여활동은 전무해 청년 불자들을 섭수하지 못했다. 포교전략 없는 포교와 구태의연한 운영도 침체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신행단체들은 침체현상이 지속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삼보회와 대원회는 회원 감소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불교대학 개설, 어린이법회 활성화, 각종 문화강좌 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림회는 직장인을 위한 참선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틀을 깨는 특성화된 포교전략의 수립과 학생 및 청년법회, 불교대학 등을 활용한 계층포교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 공유, 활동가들의 직업적 전문화 등 제반 여건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보회 김민식 이사는 "전통적인 신행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변화에 맞는 포교전략 수립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스승님, 고맙습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 서울캠퍼스는 15일 중강당에서, 경주캠퍼스는 18일 문무관에서 2001학년도 졸업식을 거행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졸업식에서는 학사 2542명, 석사 532명, 박사 78명이 학위를 받았다.

황명수 동국학원 이사를 비롯해 동문과 교직원 그리고 재학생들이 참석한 15일 졸업식에서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은 치사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과 이상을 이 사회를 위해 회향하는데 앞장 서야 할 소임이 있다"며 "불퇴의 정진력으로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인생의 대도를 당당하게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 김중근 기자

중앙승가대가 교훈을 '신심(信心) 참학(參學) 보경(普敬) 이생(利生)'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교훈이 승가의 구도행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함축성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구도이념과 교화이념을 균등하게 담아 이타행을 강조한 교훈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2월 교훈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신심'은 불심을 '자기화'한다는 의미이며, '참학'은 학습과 수행으로 신심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노력을 뜻한다. 또 '보경'은 제불보살에게 두루 예경할 뿐 아니라 일체중생을 널리 공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생'은 중생을 이롭게 함을 의미한다.

신심 참학 보경 이생

중앙승가대 교훈 개정

한명우 기자

선학원 이사회…정관개정

조계종 종지 종통 봉대 조항 삽입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은 8일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9월 6일 '조계종-선학원 정상화 합의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정관에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 한다'는 조항 등을 삽입했다.

이날 개정된 정관은 또 임원조항에 '임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중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선학원 대책위원장 동진스님은 "정관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져 종단화합의 기틀이 마련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직할행자 교육

21~24일 용주사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21~24일 3일간 수원 용주사에서 직할행자교육을 실시한다.

제22기 행자교육원 입교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직할행자교육에는 용주사 봉선사 등 경기도 본사 사찰과 서울 화계사, 대구 관음사 등 직할사찰 행자가 참가한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다함께 사찰환경 수호를…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조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만남 미래

신입생모집(2년과정)

교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 · 근본불교 · 불교문화 · 계율론
1학년 2학기 – 불교사 · 경전입문 · 정토불교
2학년 1학기 – 대승불교 · 경전강독 · 불교사회복지
2학년 2학기 – 선불교 · 포교와 상담

입학자격
불교기본교육을 이수하신 분 *타교육기관에서 이수하신 내용도 인정됩니다. 개강 후 불교기본교육 35기 강좌를 함께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부문
주간반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2시– 4시
야간반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9시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6시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본 대학 소정 양식),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불교기본교육 수료증 사본(타 교육기관 이수자의 경우)

등록안내
등록금(학기당) 36만원
*학생회비 10,000원 포함금액입니다.
가족(부모 · 형제 · 자매) 2인 이상이 불교대학을 동시에 수강할 경우 한 분에 한하여 등록금 50% 할인
국가 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록금 50% 할인

계좌번호
제일은행 100-10-013750 대한불교조계사
농협 053-01-238853 대한불교조계사
신한은행 324-05-019093 대한불교조계사

전형일정
원서 접수 : 1월 15일~
접수 장소 : 조계사 종무소 포교국
*서류심사 후 면접전형(서류심사 후 면접일자 개별통지)

학사일정
입학식 : 3월 2일(토)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개강일 : 3월 4일(월) 오후 2시

불교기본교육수강안내 (3개월 과정)
불교기본교육 강좌는 불교에 처음 입문하신 초심자를 대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불교에 입문하였으나 궁금한 것이 많으신 분, 불교를 알고 싶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조계사의 스님들께서 올바른 신행활동을 지도해주시고, 불교에 대한 기본이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내용
불자예절과 기초상식, 부처님 생애, 불교교리, 수행의 실제
*교과과정 중 해인사 1박2일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모집분야
주간반 | 매주 화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야간반 |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7시~8시 30분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기타
개강일 : 2002년 3월 9일(토요반), 3월 12일(주간, 야간반)
수강료 : 30,000원(교재비 포함)

문의 및 접수 : 포교국 720-1390, 6742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양영화 원장이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포천 '산마을 목련의 집' 노인들

중풍·치매로 고통의 나날

경기도 포천군 '산마을 목련의 집'에는 오갈 데 없는 노인 12명이 살고 있다. 모두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지만 치료는 물론, 간병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11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김미자(가명, 73) 할머니는 5년 전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이곳에 왔다. 오랜 와병생활로 대소변을 받아내던 며느리가 집을 나갔고, 이로 인해 충격 받은 아들 또한 가출해버렸다. 김 할머니는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보니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다.

돌출행동 눈 뗄수 없어

박명자(가명, 75) 할머니는 지난해 겨울 자식들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온 뒤 지금까지 자식들 소식을 전혀 모른다. 박 할머니는 "긴 병에 효자가 어디 있겠어. 늙어서 아들, 며느리 고생시킬 바에야 일찌감치 죽었어야 했는데…"라며 긴 한숨을 쉰다.

이곳에 사는 12명의 노인들은 모두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통과 오랜 지병으로 불우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은 커녕 제대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목련의 집 양영화 원장(54)은 누구보다도 이 노인들의 고통을 잘 이해한다. 치매를 앓는 친정어머니를 13년간 돌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양원장이 불쌍한 노인들 모시고 살겠다는 원을 세우고 95년 목련의 집을 설립한 것도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양 원장의 아름다운 뜻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마음만 앞설 뿐, 운영비와 일손 부족으로 만족할 만큼 노인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 치매노인들은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용변을 보는 것은 물론, 돌출행동이 잦아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고, 중풍 노인들은 일일이 수발을 들어야 한다. 양 원장의 아들 오승민(33)씨가 엄마를 돕고 있지만 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일이다.

한달 평균 4백만원 넘게 들어가는 운영비는 한계상황을 넘은 지 오래다. 매달 100만원 정도 지인들과 주변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부족분은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있다.

"하루에만도 수십 장씩 소모되는 성인용 귀저기, 생필품, 약값, 병원비에 겨울철 난방비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밤중에 기름이 떨어져 이를 밤낮을 추위에 떤 적도 있어요."

운영비 태부족… 빚더미

양 원장은 오늘도 불자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한다.

전화: (031)534-8554

주소: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413번지

후원 계좌: 농협 225047-52-191994

경기도 포천= 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2월 21일 (목)

■조계사 '정월보궁참배' = 조계사는 새벽 6시 30분 조계사에서 출발해 강원도 영월 법흥사와 정암사 등을 둘러보는 정월보궁참배 여행을 떠난다. 참가비는 2만 5천원. 또한 24일에도 통도사로 보궁참배를 떠난다. 참가비는 같다.(02)732-2183

2월 23일 (토)

■금강불교문화교육원 '선무도 체험' = 중국에 소림사가 있다면 한국에는 골굴사가 있다. 23일은 한국 선무도의 맥을 잇고 있는 골굴사 선무도 승단대회가 열리는 날.

금강불교문화교육원은 경주 골굴사 선무도 승단대회를 관람하는 여행을 마련했다. 출발은 저녁 9시 서울 하안동 본원. 참가비는 3만5천원.(02)893-2700

■선덕사 '참나찾기' 청소년 캠프 = 청소년들이 사찰에 머물면서 참선 수행을 하는 '참나' 찾기 수련회가 광주 선덕사에서 28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사찰 문화를 체험하며 자아 발견과 진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3일부터 3일 동안은 중학생 수련회가, 27~28일 양일 간은 초등학생 수련회가 열린다. 참가비는 초등학생 2만원, 중등학생 6만원이다.(062)263-4660

2월 24일 (일)

■두레생태기행 '성지순례' = 두레생태기행이 금산사, 견훤묘, 개태사 등 전라북도 불교 유적지를 둘러보는 1박 2일의 성지순례를 마련했다. 금산사는 불교 왕국 고려 건국에 큰 영향을 준 곳.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쥐불놀이 행사도 계획돼 있다. 쥐불놀이용 깡통은 각자가 준비. 출발은 오전 8시 서초구청 앞. 참가비는 8만 5천원.(02)712-5813

■삼광사 '사회복지기금마련 알뜰시장' = 부산 삼광사는 오전 8시 초읍동 삼광사 앞마당에서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알뜰시장을 개최한다. 이날 알뜰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기업체가 후원한 새것이다.(051)808-7111

2월 26일 (화)

■양정 청소년수련관 'Dance Festival' = 댄스, 댄스, 댄스… 요새 청소년들에게 댄스는 기본. 춤 잘 추는 친구들이 인기 '짱'이다.



◇지난해 열렸던 '양청 댄스 페스티벌'.

양정 청소년수련관은 오후 3시 본원에서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경연대회에는 부산 유명댄스 그룹들도 참가한다. 우승자에게는 우승트로피와 상금 10만원.(051)868-0750

■목수종합복지관 '정월대보름 연날리기' = 연날리기, 투호, 제기차기, 엿치기, 민속사진기념촬영… 풍성한 전통문화를 어린이들이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오후2시 옥수동 옥정초등학교 운동장.(02)2282-1100

■수원포교당 '금강경' 강의= 수원포교당 거사회가 동국대학교 교수 묘주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마련한다. 시간과 장소는 저녁 7시 30분 본원 불교문화원 2층 관음전. 참가비는 무료.(016)271-6484

2월 28일 (목)

■터사랑 '성지순례' = 무박 2일로 여수 향일암, 흥국사, 오동도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 부처님이 머물렀다는 세존도,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감응도, 아미타불이 화현했다는 미타도 등이 있는 향일암은 대표적인 기도사찰. 참가비는 어른 5만 5천원, 청소년 5만원.(02)725-1284

"이웃에 도움되는 삶 살고 싶어요"

우리 절 우리 신도

보장사 청년회 살림꾼 황상필 씨



◇황상필 씨는 인터넷을 통해 신도들의 신행을 돕고 네티즌 포교에 정성을 쏟고 있다. 든든한 후원자인 보장사 관음회 정옥선(왼쪽) 부회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장애 딛고 매일 500~1000배 절 수행

인터넷 통해 사이버 포교·상담·홍보

9일 안양시 유원지 입구에 위치한 보장사(주지 덕해). 내달 문을 여는 영각당(납골당)을 갖춘 이 사찰의 법당에서는 이날, 지체장애로 팔 다리가 불편한 한 청년불자가 이마에 땀방울을 송송 맺은 채 정성껏 절을 하고 있었다. 4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500~1000번의 절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은 보장사 청년회(회장 서혜성)의 살림꾼 황상필(34) 씨.

조석 예불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황씨는 부처님 오신날 행사나 각종 법회때 청년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도맡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숨은 일꾼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보장사 청년회 활동의 매개역할을 하며, 사이버 포교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그의 독특한 신행의 하나다. 황씨가 주로 활동하는 사이버 공간은 다음카페의 '보장사 청년회'(cafe.daum.net/bojangsa)와 드림위즈의 '부처님과 함께'(club.dreamwiz.com/budist). 이곳에서 그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소개하고 상담도 하며, 신입회원들에게는 사찰예절이나 불교교리를 자상하게 설명한다.

황씨가 다음카페에 보장사 청년회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2년전. 김형락(40) 초대청년회장이 카페를 개설하고 청년회 유인철(37) 부회장과 황씨가 주도적으로 카페를 운영했다.

거동이 불편한 황씨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새안양불교청년회의 창립기념행사며, 정기종회, 경기불청의 행사를 도맡아 알리고 참여도 촉구한다. 보장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양노인복지센터(031-455-0551)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앞장선다. 또 보장사가 운영하는 대전 보문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장학금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형락)를 통해 매년 2회씩 전달하고 있다. 청년회 회보 편집, 노인복지센터 봉사와 사찰 도량청소, 교리강좌 일정 등을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전달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

이처럼 부지런한 그의 신행은 안양역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불청경기지구회(회장 김명옥)로부터 새안양불교청년회 활성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받기도 했다.

황씨는 서울 마포고등학교에 재학시절, 학업성적이 뛰어난 문학청년이었다. 그러나 졸업 후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부자유자가 되었다. 동남보건전문대를 어렵게 졸업했지만, 몸이 불편해 취업도 힘들었다. 좌절하기 쉬운 젊은 나이에 황씨가 불교에서 희망을 되찾게 된 것은 4년 전. 지장전 아래층 공양간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부터다. 지장전 아래층 방들이 모두 무너졌지만, 어머니가 일하던 공양간만은 멀쩡했다. 33년간 보장사를 다니던 어머니의 신심으로 호법신장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게 황씨의 믿음이다.

이때 황씨는 보장사 주지 덕해스님의 권유로 절을 시작했다. 오전 6시부터 11시반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쉬어가며 절을 한다. 겨울철 온기 없는 법당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절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병 낫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성불을 서원하는 참기도를 하게 되었다.

33년간 보장사를 다닌 어머니 김초자(59) 보살은 인사동에서 운영하던 화랑을 정리하고 4년 전부터 자청해서 보장사의 공양주 소임을 맡고 있다. 자식의 건강회복을 기원하고 절 수행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다. 김초자 보살은 "주지 스님은 '더우면 절하기 힘들다'며 일부러 난방을 하지 않는다"고 웃으며 말했다. 주지 스님도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 난방도 하지 않은 채 지내니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황상필 씨는 "큰스님께서는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정성껏 임하면 만사형통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신다"며 "미력하나마 큰스님을 본받아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 나아가 중생을 구제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안양= 김재경 기자

추천의 말

덕해 스님 안양 보장사 주지

사심 없이 임하면 만사가 성취됩니다. 모든 불사가 원만 성취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사심 없는 마음과 신뢰입니다. 정성을 다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삼매에 들 것이요, 일하는 사람은 일삼매에 들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황상필 군의 '절하기' 수행은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 전 절 한번 하기 힘들었던 그가 이제는 혼자서 하루 1000배를 하고 보행도 가능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청년회 활동은 물론 사찰의 대소사를 꼼꼼히 챙기고, 신도들에게 미소와 희망을 선사하는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황군의 발심을 거울삼아 자신의 서원을 정성껏 성취하는 불자가 되길 바랍니다.

金河堂 光德 大禪師 涅槃 3주기 追慕法會 奉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새로운 문명의 세기.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혼돈과 불안으로 잔뜩 왜소해진 인류에게 스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설파하셨습니다. 선교(禪敎)에 대한 깊고 넓은 지견과 실천적 수행을 겸비하시고, 뜨거운 신앙심과 서원으로 다진 수행공동체인 '불광회'를 창립하여 대중포교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순수불교운동지 월간 「불광」을 발행하시어 문서포교의 새 장을 여신 선각자로, 대중불교의 횃불로,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으며, 그 빛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어 큰 빛을 나투시고 세간의 밝은 등불로 헌신해오신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어느덧 3주기가 되었습니다.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전법으로 깨달음을 이루라는** 간곡한 부촉을 잊지 않으셨던 스님의 부촉을 받자와 저희 대중들은 더욱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용맹정진할 것을 거듭 서원드리오며, 스님의 뜻과 행적을 기리는 추모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상좌대표 **지 정** 회장 **현선 김상규** 합장

추모법회 법어/범일보성 큰스님(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
추모사/목우성오 큰스님(범어사 주지)

일 시 : 2002년 2월 23일 (음력 1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 소 : 불광사 보광당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 대선사

1927년 경기 하성 출생 | 1950년 부산 범어사 입산 | 1951년 부산 범어사 신원 첨풍딤 정진
1955년 부산 범어사 동산 선사를 은사로 득도
1956년 비구계 수계, 대각회 창립, 초대회장 | 1958년 조계종 중앙집찰위원 | 1962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1963년 대학생불교연합회 초대 지도법사 | 1965년~1967년 봉은사 주지, 학교법인 대동학원 이사
1966년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 | 1969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재단법인 대각회 감사
1971년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 부의장 창립 스님 열반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당시 조계종 총무부장)
1973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 1974년~1999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순수불교 운동지 월간 「불광」 발행인
1975년~1999년 불광법회 창립, 법주 | 1977년~1995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역임
1979년~1999년 불광출판부 개설, 발행인 | 1990년~1996년 선찰 대본산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전계대화상
1992년~1999년 도서출판 친장수 개설, 발행인 | 1993년~1999년 재단법인 보덕학회 이사 | 1999년 2월 27일 (음력 1월 12일) 열반

역저서 -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삶의 빛을 찾아, 빛의 목소리,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원품 강의, 행복의 법칙, 메아리 없는 공짜기 만법과 짝하지 않는 지, 신광책진, 육조단경, 부모은중경 · 금음경, 지장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천수관음경, 법희요전 등 다수

찬불가 - 창작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 · 부모은중송, 마하반야의 노래, 인욕 피는 날, 찬란한 이 아침, 초파일 송가, 빛으로 돌아오소서 님의 음경, 임은 태양 위 태양, 혼자 있을 때, 보디스바하, 우리는 불국토의 주인이로다, 변영하는 사람의 기도 등 다수 작시

문의전화: 02 - 413 - 6060 ~ 2 | http://www.bulkwang.org | E-mail: webmaster@bulkwang.org **불광사 · 불광법회**

일주문



평불협 창립 10주년 기념식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장은 22일 오후 6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평불협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日 심포지엄 참가 출국

진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는 '동아시아 냉전과 국제테러리즘' 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 22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광주불교문화대 졸업식

영조 광주불교문화대학장은 28일 오전 10시 광주불교문화대학 대강의실에서 졸업식을 거행한다.



교불련 정기총회 · 이사회

연기영 교수불자연합회장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만해교육관에서 교불련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한다



'선과 선어록' 16주간 강의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3월 2일부터 16주 동안 연세대 사회교육원에서 열리는 '선과 선어록' 강의를 한다.



파드마 슈리상 수상

김양식 한국인도문화연구원장은 최근 한 · 인도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파드마 슈리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금융단불교련 4대 회장

이탁수 한빛은행 강남영업본부 차장은 5일 금융단불교련 운영위에서 전국금융단불교련 제4대 회장에 선출됐다.

생명나눔회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6일 군법사 출신으로 만성신부전증과 간암으로 투병 중인 박상호 법사에게 치료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박 법사는 군포교에 서원을 세우고 매진했다"며 쾌유를 빌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불자와 현역군법사들의 정성으로 모아졌다.

"東亞선승 정신사 연구 관심"

정년퇴임 동국대 사학과 조영록 교수



"선종계통 스님들이 구법을 위해 중국을 찾는 과정을 추적해 동아시아 선승들의 정신사를 새롭게 밝혀보고 싶다."

2월말로 32년간의 강단생활을 접고 야인(野人)으로 돌아가는 동국대 사학과 조영록 교수는 정년퇴임후 "지금까지는 명대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지성사가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앞으로는 중국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신사'를 새로운 연구 주제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명대 사상 · 정치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교류사에 천착해 온 조 교수가 중국 불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를 새롭게 조명해 보기 위해서다. 조 교수는 "송대 이전까지 중국 정신사를 지탱해 오다 침체됐던 불교가 다시 부상하는 게 명나라 말기 이른바 3고승이 나타나면서부터인데, 이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한 조선불교의 중흥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며 "명말 3고승의 사상적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유불선 3교의 합일이었는데, 서산 사명대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불교 역시 유불 합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그 동안 쓴 논문들을 〈중국 근세 지성의 이념과 운동〉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 연구〉(가제)로 묶어 3월쯤 출간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전북 제1의 복지관 만들터"

8월 개관 서원노인복지관 우용호 관장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큰 복지관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산사 사부대중이 지혜를 모아 복지관이 여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일 개관과 함께 전주 서원노인복지관장으로 취임한 우용호(44) 관장. 우관장은 개관하자마자 밀려오는 노인들에게 행여 불편한 점을 없을까 일일이 챙기고 있다.

"전주시가 서원복지관의 경영을 금산사에 맡긴 것은 금산사 사부대중과 도영 스님의 노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서원복지관의 개관은 유독 불교세가 약한 전라북도에서 불자들이 벌인 노력의 첫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금산사에 주지로 부임한 이래 금산사의 사부대중들은 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노인일거리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복지불사를 크게 일으키고자 노력했다. 우 관장도 노인일거리 사업장의 팀장으로 있을 때 스님과 맺은 인연으로 서원복지관 관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의 경륜을 배운다는 자세로 봉사를 하겠다"는 우 관장은 "서원종합복지관을 명실공히 전북 제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불자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자비종교 불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전주시민들에게 심어나갈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선시대 불교 새로 조명돼야

어르신 경륜 배우는 자세로 봉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최대 역점

임오년을 뛰는 불자 ⑦ 한국세무사불자회장 정구정 씨



"현대인들은 앞만 보고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업무특성상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기성찰을 통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불법을 전하고 전국의 사찰과 대중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실시,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년 한국세무사불자회 창립위원장을 맡아 불자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했고 지난해 세무사불자회장으로 선출된 정구정(47) 세무사는 올해를 불자회 제2창립의 해로 정했다. 지난 7년간 꾸준히 법회를 보고 신행활동을 해 왔지만 보다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불심을 더욱 견고하게 이끌고 싶기 때문. 그래서 그는 올해 불자회 창립 당시의 초발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 회장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www.buddhatax.com) 제작. 2월 말 정식 오픈 예정인 홈페이지에는 법회에 등참하지 못한 회원들과 조세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사이버 법문과 불교이해하기 코너가 운영될 계획이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불교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을 위해 사찰예절, 기초교리, 불자로서의 기본 상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불교이해하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회원들을 위해서는 큰스님 육성법문, 동영상 등을 디지털로 변환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법회 안내, 기타 공지 등을 통해 회원들의 친목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불법은 배우는 것보다 회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 회장은 홈페이지에 무료 세무상담 코너를 신설해 회원들이 가진 지식을 나누고 남의 관심이 적고 소외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등 온 · 오프라인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자회의 창립 목적인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사회 봉사, 회원 친목강화'를 실현한다는 것. 지난 1월에는 라면, 쌀 등 생필품을 들고 안산 대부도 둥지마을을 방문해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큰스님법문 디지털화, 무료상담코너 신설

매월 둘째주 금요일 봉은사에서 열리는 정기법회와 6월과 10월에 실시되는 성지순례 등 기존에 펼쳐왔던 행사들을 특성화 하는 것 또한 정 회장이 세심하게 준비하는 사업이다. 또한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조세일보 등 세무관련 홈페이지에 불자회 홈페이지를 홍보할 계획이라는 정 회장은 올해 세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현재 200여명인 회원을 2배로 늘린다는 각오도 세우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대승종 수계산림법회 · 건당식

대한불교 대승종은 8일 서울 신당동 흥도사에서 수계산림 법회 및 건당식을 가졌다. 종정 도압 스님을 비롯해 일오 총무원장, 서봉 원로원장, 법타 교육원장, 기현 포교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10명이 비구 · 비구니계, 사미 · 사미니계를 받고 종정 도암스님과 총무원장 일오스님 앞으로 건당했다.



한마음선원 새해맞이 촛불재

설을 맞아 '새해맞이 촛불재'가 한마음선원 본원을 비롯 국내외 26개 지원에서 열렸다. 국내 지원은 14~16일 촛불재 행사를 가졌으며, 해외 지원 또한 설을 전후로 촛불재 행사를 가졌다. 특히 12~14일 안양 본원에서 열린 촛불재(사진)에는 4천여 불자들이 참석해, 마음의 불을 밝혀 불자로서의 참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종단협, 대북지원 물품 선적식

종단협의회는 7일 인천항에서 방한외투 2만벌(5컨테이너 분량)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된 방한외투 2만벌은 북한 흑한지역인 자강도 량강도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선적식에는 천태종 관문사 주지 준광, 원효종 총무원장 무진,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동봉,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동명불원 대불장학회 장학금 전달

동명불원 대불장학회(이사장 장산)는 10일 동명불원 대웅전에서 제2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산스님은 문현여고 2학년 윤은란, 컴퓨터고 1학년 김진호 등 5명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산스님은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노력해 사회를 위하는 큰 일꾼이 되어달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봉

구담사 양력 3월 5일

태아 <낙태, 유산> 영아 영가 49일 천도재

행

증명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심원사 도후 큰스님



◉입 제 일 : 양력 3월 5일(음력 1월 22일) ◉회 향 일 : 양력 4월 22일(음력 3월 10일)

◉49재 기도 동참금 : (10만원) ◉태아 영가 위패비 : 1위당 (5천원)

◉준 비 물 : 분유, 사탕(과자류, 초코파이등) 〈영가 옷은 사찰에 있음〉

◉교통안내 : 동서울 터미널 → 일동

상봉터미널 → 일동 → 연곡4리 하차

수유리 터미널 → 일동

일동 하차 → 터미널에서 구담사 운행 〈입재, 3재, 5재, 7재〉 만 해당.

◉법회 당일 구담사 버스 운행 〈입재, 3재, 5재, 7재〉

양력 3월 5일 오전 8시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입구

◉입금계좌 국민은행 : 217-01-0339-914 농 협 : 225050-56-033370

자세한 문의는 ☎ 031) 533-2855 / FAX 031) 532-2441

※ 특히 대학입시,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태아영가 접수만 받습니다.

※ 지방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위패 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구 담 사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4리 595번지



◇경남 산청 율곡사 대웅전(보물 374호).



◇전남 여수 흥국사 대웅전(보물 396호).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830호).

산청 율곡사 · 여수 흥국사 · 영광 불갑사

대웅전 올부터 해체보수

문화재청 공사기간 12~20개월

17~18세기에 지어진 절집 건물 네 채가 해체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보물 374호인 경남 산청 율곡사 대웅전과 보물 396호 전남 여수 흥국사 대웅전, 보물 830호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에 대해 해체 보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율곡사 대웅전 보수공사 발주를 공고했다. 지난해 해체보수를 시작했던 충북 보은 법주사 대웅전(보물 915호)은 보수를 위한 덧집 설치가 끝나는 대로 3월경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간다.

오래 된 목조건축물의 경우 기와 교체 등의 부분 보수는 수시로 하지만 건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난해부터 문화재청 직영 보수사업으로 해체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해체 보수에 들어가면 먼저 건물 전체를 감싸는 덧집을 설치하기 때문에 짧게는 12~15개월에서 길게는 20개월 정도 고색창연한 자태를 볼 수 없게 된다. 이들 고건축물들은 이르면 6~7월경, 늦어도 9~10월경에는 보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기 이후 흔히 볼 수 있는 다포양식의 팔작지붕 건물인 율곡사 대웅전(보물 374호)은 빠르면 6월부터 해체 보수에 들어간다. 전면 해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웅전 포벽에 탈락 현상이 심한 것으로 봐 기둥이 들떠 건물이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16개월 정도의 보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대웅전을 참배하려면 내년 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조선 인조 2년(1624)에 조성된 흥국사 대웅전(보물 396호)은 건물의 네 귀퉁이에 세워 추녀를 받치는 활주(活柱)의 주춧돌(초석)이 썩어 있어 해체 보수가 결정됐다. 보물 578호인 석가후불탱화 역시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전면 해체 여부는 지붕을 들어낸 후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임시 방을 없애는 등 이번 기회에 변형된 건물 내부의 원형을 찾아서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율곡사 **포벽 탈락현상 6월부터 공사**

흥국사 **주춧돌 부식 … 뒤틀린 원형 복원**

불갑사 **지붕 새고 기둥서 벌레 · 미생물**

백제 침류왕 원년(384)에 마라난타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불갑사의 대웅전(보물 830호) 역시 조선 영조 40년(1764)에 중건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해체된다. 비가 샐 때마다 응급 보수를 하긴 했지만 기와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 기둥도 벌레와 미생물 때문에 기능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썩어 있어 전면 해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9월 공사가 시작된 법주사 대웅전(보물 915호)은 덧집 설치 마무리 단계다. 조선 인조 2년(1624)에 중수된 법주사 대웅전은 우리 나라 3대 불전의 하나로 2층 건물의 웅장함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둥과 마루의 부식이 심해 전면 해체에 들어갔다. 2003년 말이나 돼야 보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대보름 맞이 탑제 · 장승제

민속박물관 장승동산서

국립민속박물관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야외전시장에 마련된 장승동산에서 '희망의 2002 정월 대보름 맞이 탑제 및 장승제'를 21일 오전 10시~오후3시에 연다.

탑과 장승, 솟대는 선돌 등과 함께 마을제의 대상이자 주민들의 소박한 신앙물로 주민 전원의 공동 준비와 참여로 진행되는 향토축제로서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급속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전통 문화를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대사동 마을의 장승제를 모델로 현지 마을 사람 30명을 초청해 치를 예정이며, 관람객이 탑제 및 장승제에 제주(祭主)로 동참하는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꾸며진다. 장승과 솟대를 깎는 과정을 비롯하여 장승제 전 과정을 생동감 있게 재현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마을 신앙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02)725-5964

이은자 기자 ejee@buddhapa.com

승오 스님 불화전 대림아트갤러리서

승오스님의 '불화전'이 24일까지 서울 관훈동 대림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가야산 해인사 강원의 학감으로 재직 중인 스님은 82년부터 불화 공부를 해 왔으며, 90년에는 전승공예대전에서 '관음자용 32현 16폭 병풍'으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모습의 관음도 30점과 지장보살도, 지장시왕도, 18나한도, 심우도, 부모은중도 등의 그림과 반야심경, 금강경을 옮겨 놓은 글씨 등 총 45점이 선보인다. (02)733-3788



◇승오 스님 作 '관음도'.

현대불교문학상 발표

소설-김성동 씨
시-이근배 씨
평론-김재홍 씨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 스님)가 주관하는 제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소설 부분은 장편소설 〈꿈〉을 통해 현대불교소설의 한 영역을 개척한 김성동씨(소설가)가 선정됐으며, 시 부분은 이근배씨(시조시인, 재능대교수), 평론 부분은 김재홍씨(평론가, 경희대 교수)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이 난을 통해 연재를 시작한지 1년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나 자신 문학과 불교의 만남에 대해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돌이켜보니, 아득하게 잊고 있었던 선시(禪詩) 한 편이 떠오른다. 그 시를 계기로, 인간을 성숙으로 이끄는 문학의 세계와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에 다가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고전이란 그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정신적 키를 훌쩍 크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T. S. 엘리어트가 말했던가. 내 마음에 처음 세겨진 그 '고전'은 12세기 중국 송나라의 야보도천(冶父道川)의 시다.

대 그림자 뜰을 쓰는데
먼지 하나 일지 않는다
(竹影掃階塵不動)

달빛이 연못을 꿰뚫어 바닥에 닿았는데
물에는 흔적 하나 남지 않는다
(月穿潭底水無痕)

야보도천의 '금강경송'

한 물결이 살짝 흔들리자 만물결이 뒤따르네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이 시가 내포하는 의미보다 이런 시를 쓴 시인의 직관적이고 담백한 경지가 한없이 부러웠었다. 그리고 나도 선의 세계를 알아서 이러한 경지를 조금이나마 맛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첫사랑 이후 나의 관심은 늘 그 언저리를 맴돌았고,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늘 그 청량한 기운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읽어보니, 이 시가 육조 혜능을 깨닫게 한 〈금강경〉의 핵심구절인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應無所住而生其心)'에 대한 절묘한 비유라는 것이 느껴진다. 하나의 작품만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이런 경지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선가(禪家)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종밀, 부대사, 혜능, 야보, 종경의 다섯 명의 대가가 해석한 책이 〈금강오가해(金剛經五家解)〉이다. 그 중에서 야보는 파격적으로 시를 주석으로 붙였다. 그것이 불후의 명작 〈금강경 치부송(冶父頌)〉이다. 말하자면 선에 입각해 금강경을 해석한 것으로, 세세하고 논리적인 산문 주석을 버리고 선시(禪詩)라고 하는 예리한 칼을 빼들어 언어의 길을 끊어버린 것(言語道斷)이다. 그의 시는 우리로 하여금 백척간두에 서게 한다. 우리의 눈앞에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가 펼쳐진다. 백척간두에서 시의 허공 속으로 한 발 더 내딛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그 암시가 담고 있는 빈 공간이 얼마나 큰지는 같은 책에 수록된 다음의 시가 잘 보여준다.

천길 낚싯줄을 똑바로 내리니
(千尺絲綸直下垂)
한 물결이 살짝 흔들리자 만물결이 뒤따르네
(一波纔動萬波隨)
고요한 밤 물은 차서 고기 아니 무나니
(夜靜水寒魚不食)
배에 가득 달빛만 싣고 돌아가누나
(滿船空載月明歸)

■문학평론가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제(전구(장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일러멘트가 6배(특 일러멘트)로 밝아 열등이 밝고 챌면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31) 986-0277~8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재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 755-9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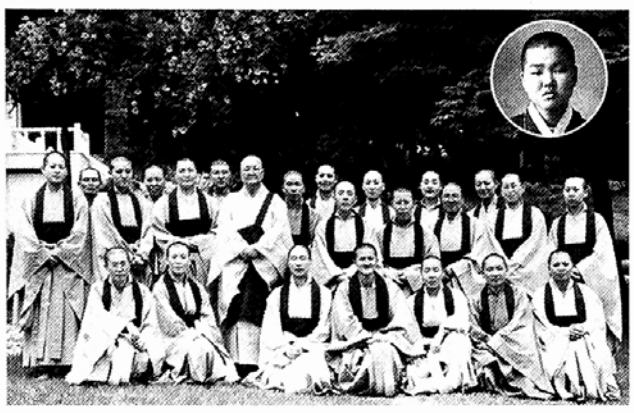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기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튼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기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회색 고무신'

윤청광 엮음

묘엄 큰스님 삶 소설형식 구성



◇세속 나이 칠십이 넘은 묘엄 스님은 지금도 학장 스님으로 강단에 오른다. 원내는 출가 초기의 묘엄 스님.

정신대 피해 진학포기 대승사로
청담·성철 스님 주도 정화운동도 담아

〈회색 고무신〉(시공사)은 청담 스님의 딸로 태어나 일제시대, 6.25전쟁 등 파란만장한 현대사 속에서 오직 깨달음만을 추구하며 평생 치열한 구도의 길을 걸어온 한 노비구니 스님의 삶을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행장기다.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불교 정화를 외치던 청담 스님. 그는 노모의 원을 들어주기 위해 하룻밤의 파계를 행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순이는 정신대에 끌려갈 상황에 처하자 여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아버지 청담 스님이 있는 대승사로 피신한다. 그러나 그것은 피신이 아니라 출가를 원하는 어머니의 바람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안 청담·성철 스님은 인순이가 스스로 출가하도록 이끌어보자는 데 묵시적인 합의를 한다. 그리고 출가 발심을 이끄는 일은 성철 스님이 도맡았다. 두 스님은 참선 정신이 끝나면 곧장 인순이가 있는 방으로 와 인순이를 설득한다. 하루 이틀 사흘… 인순이를 곁에 앉혀 놓고 성철 스님은 부처님 생애를 시작으로 발명가 에디슨, 아인슈타인, 소크라테스, 공자, 세종대왕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의 성인과 임금들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놓는다.

여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인순이는 결국 절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가를 결심하고 성철 스님이 제자가 된다. 그 주인공이 바로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엄 스님.

이렇게 출가한 묘엄 스님의 사미니 생활은 윤필암과 대승사 쌍련선원을 오가며 바쁘게 이어진다. 특히 쌍련선원에 있는 아버지 청담 스님과 성철 스님으로부터 특별교육도 받아야 했다. 청담 스님은 직접 적어 준 아홉 가지의 대중살이 규범 '명심(銘心)'과 성철 스님이 만들어준 '영산정로(靈山正路)' 등 비구니로서 갖추어야 할 규범을 외워야 했다. 이는 묘엄 스님을 훌륭한 강사로 만들기 위해 두 스님의 원력으로 그 가르침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가 강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계룡산 동학사 시절, 성철 스님으로부터 강사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운허 스님은 이 때부터 묘엄 스님에게 〈치문〉을 강의토록 한 것이다.

경봉·운허 스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묘엄 스님은 1957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사가 된다. 그 후 동학사와 운문사 강원의 강사를 시작으로 봉녕사 강원 설립과 중창에 이르는 40년의 세월은 한국비구니 강원의 산 역사가 된다.

스님의 딸로 태어나 14살에 출가하여 당대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불법을 배우는 구법행과 강사로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스님의 행장이 감명 깊지만 또 다른 재미는 현대 한국불교사의 주요한 단면을 보게 한다는 점이다. 청담·성철 스님 등이 주도한 대승사·봉암사 결사, 불교 정화 운동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처럼 이 책은 척박한 토양에서 우리의 스님들이 얼마나 치열한 구도의 길을 걸어왔는지 웅변해 준다.

묘엄 스님의 조카인 김용환(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일 주일 간에 걸쳐 녹취한 내용을 작가 윤청광 씨가 재구성했다. 값 9천원.

출판 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어느 수행자의 주머니 속 이야기(법웅 스님 지음, 개미)= 구도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 등 인간의 삶이 지닌 여러 문제들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인생 지침서. 삶의 지혜를 밝히는 82편의 글들이 수록된 이 책은 '사랑을 만드는 지혜'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으로 기다리며' 등 3부로 구성돼 있다. 지은이는 서울 용천사 포교원장 법웅 스님. 값 8천원.

▲붓다(데츠카 오사무 지음, 하주영 옮김, 학산문화사)= '우주 소년 아톰' '블랙잭' 등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데츠카 오사무 씨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장편 만화책. 모두 14권으로 구성된 이 만화는 부처님의 생애를 뒷이야기와 함께 흥미롭게 그린 전기물이다. 학습만화 형식으로 편집해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위인으로서의 부처님을 알 게 해 준다. 값 각권 6천5백원.

▲내가 체험한 캐나다(송형승 지음, 자료원)= 토론토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한 송형승 씨의 캐나다 이민 생활 체험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캐나다의 대학입학 절차와 각종 사회제도,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험기가 수록돼 있어,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싶은 사람 등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값 8천원.

▲자기 보살핌(도마 헨리 드레허 지음, 노진선 옮김)= 온종일 남편과 친구들, 동료, 혹은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하루해가 다 저물고 처음으로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너무 피곤해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인생의 대부분이 이런 날들로 채워져 있다면, 하버드 의대 여성심신건강센터 책임자 도마 박사의 제안이 담긴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도록 도와 줄 것이다. 값 1만원.

▲아둥바둥 살지마라(후지와라 도엔 지음, 류지연·이현주 옮김, 엔북)= 일본 교토대학 법대 출신이면서 현재 시즈오카 호타이사 주지 및 임제종 묘신지파 학부부장을 맡고 있는 후지와라 도엔 스님이 열심히 사는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선(禪)의 지혜 51가지. '차분한 마음이란', '단점에 익숙해지자', '거리가 인간을 만든다' 등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자세나 견해에 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값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2	왕 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 지 외	민 족 사
3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4	봐라 꽃이다	김 영 욱	호 미
5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6	생활수행이야기	원 황	불 광
7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8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효 림
9	이른 아침 잠깐 앉은…	박 영 재	운 주 사
10	행복한 달마	이 규 행	백 암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1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엔닌의 입당 구법…'

김문경 옮김



1월13일 일본 교토에 있는 엔랴쿠사에서는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독점했던 해상왕 장보고를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일본은 왜 3대 사찰 가운데 하나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엔랴쿠사에 장보고 기념비를 세우게 했는가. 그것은 엔랴쿠사 주지를 지낸 지각 대사 엔닌이 838년 당나라에 들어가 10년 간 구법순례를 할 때 장보고와 당나라에 머물고 있던 신라인들로 받은 도움 때문이었다.

〈엔닌의 입당 구법순례행기〉(중심)는 엔닌의 당나라 구법활동을 일기체로 기록한 책으로 그가 신라인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사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가까이는 신라인이다.

재당 신라인 불교의례 등 담아

엔닌이 순례한 산동 일대의 큰 절에는 신라원이 있었다. 이 신라원은 당나라를 여행하는 신라승과 신라인 무역업자들이 머무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장안은 물론 해안의 주요 지역에는 신라인들이 모여 사는 신라방이 있었다. 엔닌은 여행 중 신라원에서 머물기도 하고 통역 등의 도움을 받는다. 특히 적산법화원에 머무는 동안 재당 신라인들이 추석 명절을 지내는 풍습과 그 유래와 적산법화원의 강경의식, 일일강의의식, 송경의식 등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엔닌은 이러한 불교의식이 대부분 신라식으로 거행되고 있다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신라 강경법회의 행법을 전하는 유일한 기록으로 우리 불교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책을 통해 독자들은 9세기 동아시아 사회상과 재당 신라인들의 활동상을 직접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양학자 라이샤워는 이 책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현장 법사의 〈대당서역기〉와 함께 세계 3대 여행견문록으로 꼽고 있다. 신라사를 연구하고 있는 숭실대 김문경(해상왕장보고연구회장)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값 3만5천원.

열반에서 다비까지 병진 스님 펴냄



지난해 12월 31일 원적에 든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의 다비과정을 담은 화보집 〈열반에서 다비까지〉(문이재)가 출간됐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재학 중인 병진(일산 장안사 주지) 스님이 펴낸 이 화보집은 혜암 스님이 열반에 든 순간부터 화장과 사리습골에 이르기까지 7일간의 전 과정을 컬러 사진으로 담고 있다.

'가야산에 울리는 열반의 종소리'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 등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화보집은 특히 종단장 소임 구성, 운구행렬 순서, 다비단 준비와 완성, 영결식에 사용된 여러 서식 및 다비문의 한문과 한글 음역 등이 실려 있어 불교화장장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값 2만8천원.

혜암 스님 다비 7일간의 기록

'空으로 춤추는 사랑'

김병채 옮김



"참 희열로 가는 비법은 생각을 그만두는 것 조차 멈추고 참 침묵하는 것이다. 최고의 수행은 '나는 누구인가'를 정말로 깨닫는 것이다."

인도 아루나찰라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에 의해 진리를 깨달은 슈리 푼자(1910~1997)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신간 〈공(空)으로 춤추는 사랑〉(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은 슈리 푼자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노래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은 것이다. 푼자는 수많은 방편을 사용하고 마음을 멈추게 하고, 나는 누구인지를 탐구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말에 얽매이지는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참 진리는 지식을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하고, 확인하고, 자르고, 머리로 이해하는 마음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 자신이 바로 진리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푼자의 가르침을 펴고 있는 김병채(창원대)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값 1만2천원.

"나는 누구인가" 탐구방법 제시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나란다삼장불학원은 불교교양대학, 불교대학·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전문불자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들과 법사·포교사 및 불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사)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개설한 특별교육기관이다. 과목별 특강으로 경·율·논·선·밀교·의식 등 각 과목별로 한 과목씩 이수하여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스님들에게는 일어·영어·중국어 어학코스도 병설, 외국유학을 갈 수 있도록 주선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교육기간을 거쳐 수계하도록 하며 일반 사찰과 포교기관에 나아가 전법도생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다.

▣ **모집과정**
사미과(沙彌科) : 사미율의·초발심자경문·치문경훈·천수경·반야심경·아함경·예불의식·법회의식
사집과(四集科) : 서장·도서·선문촬요·방등경·계율해설·비교종교학·구사론·장례의식·방생의식
사교과(四敎科) : 능엄경·금강경·원각경·반야경·기신론·유식론 교단사·불공의식·기도의식
대교과(大敎科) : 법화경·화엄경·정토사상(미타, 약사, 미륵, 밀교)·선문염송·전등록·삼론·교리발달사·제사의식
특별과정(외국어학과) : 영어·일어·중국어(회화중심)

▣ **교육기간** : 2년(과정별 선택, 통신반 가능)

▣ **개강일시** : 2002년 3월 9일 오후 2시

▣ **교 수 진** : 한정섭 박사, 김호암(한국불교통신대학원장), 남진각 스님(LA 대각사주지) 오형근 교수(전 동국대불교대학장), 최종안 교수(중앙승가대학 교수), 진하 스님(예술대학 주임교수), 혜인 스님(신흥사 주지) 외

▣ **강의시간** : 각 과별로 매주 월~목요일까지 오후7~9시

▣ **접수문의** : 나란다삼장불학원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

나 란 다 삼 장 불 학 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제6기 전수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제 제 9호(작법무 기능보유자)이신 **三歸 金海崗** 큰 스님의 범패(梵唄)와 범무(梵舞)를 전수코저 제 5기 전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모집과정 : 기초과정** ▣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 **교육기간 : 각 과정 4개월 기본(1년 과정)** ▣ **모집기간 : 3월20일 ~ 4월20일까지**
▣ **강의내용 :**

	교육과정	교육내용
기본과정	기초과정	범음, 범패 강의 및 의식실습 육법공양 천수바라 작법무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중등과정	천수바라, 다게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고등과정	사다라니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연구과정	대학과정	운심게, 삼귀의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 **강 사 진 : 한정섭 법사, 김진하 스님(무형문화제 제9호 작법무 준보유자)**
▣ **강의시간 : 매월 2, 4째주 수, 목요일 강의**
▣ **특 전 :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을 수여함.**
▣ **문 의 처 : 한국불교예술대학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

各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代佛, 小佛
佛壇,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www.yosiamun.com

"몸 마음 하나될때 신명나는 춤사위 나오죠"

산문밖의 禪單 이애주 서울대 교수



◇이애주교수가 하얀 고깔을 쓰고 한삼을 휘날리며 천 · 지 · 인을 상징하는 승무의 엎고 제치기 기본 춤사위를 흘날리고 있다.



◇1971년 영동 교습소에서 스승인 벽사 한영숙선생에게 승무 전수를 받고 있는 이애주교수(오른쪽)



"승무는 몸짓으로 드는 나의 화두"
그 속엔 생로병사·우주이치 담겨
무용가 수련정도 따라 표현도 달라

'승무(僧舞)는 아무나 추나.'

결코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 없다. 오로지 몸짓 수행을 수없이 반복한 사람만이 고고한 춤사위를 흐뭇할 수 있다. 온갖 춤사위가 집대성 된 한국춤의 백미(白眉)가 바로 승무인 까닭이다. 하얀 고깔을 쓰고 추는 승무는 긴 한삼을 천천히 뿌려 모으며 응크리다가 다시 펼치는가 하면, 일순간에 모아 제치며 비상하는 독특한 멋을 지녔다.

춤추는 이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합일돼야만 가능한 심신일여(心身一如)의 경지야말로 승무만이 보여주는 율동미의 극치다.

이애주 서울대 체육과 교수(55 · 무형문화재 27호 승무 예능보유자)가 춤춘 세월 50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승무' 화두 하나에만 매달리며 몰두해온 이유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96년 승무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이 교수는 그동안 스승인 한영숙(1921~1989)선생의 '법열곡'과 영산지의 식당작법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등 전통승무를 알리기 위해 고심해 왔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서울 진관사, 수원 용주사, 울산 자광사, 김천 직지사, 강화 전등사 등 10여 사찰에서 자신 춤공양 무대를 마련, 춤사위를 한껏 도량 곳곳에 흩날려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승무가 태어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웅전을 배경으로 춤공양을 하니 저절로 환희심이 우러났어요. 그러다보니 신심이 솟구쳐 춤사위도 허공으로 그냥 사라지지 않고 거룩한 합장(合掌)을 한 것처럼 오랜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이 교수는 그때의 감흥이 되살아 나는 듯 간간히 춤사위를 보여주며 설명한다.

이 교수의 사찰 춤공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승인 한영숙 선생이 살아계실때는 스승과 함께 크고 작은 사찰행사에서 가끔 춤공양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스스로 팔을 걷어부칠 정도로 자발적이진 않았다. 12년전 스승의 위패를 직지사 은선암에 모셔놓고 내려오면서 언젠가 이곳에서 대중들을 위한 춤공양을 한 번 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것이 흘러흘러 지난해에야 비로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벽사선생님께서는 온몸의 뼈마디와 피가 쉬일 정도는 돼야 올바른 춤이 된다고 늘 가르치셨죠. 그만큼 진정한 춤은 피나는 수련과 인고를 거쳐야만 잉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춤추는 것도 끊임없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수행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저는 화두를 '승무'로 들 뿐이지요. 몸 동작이 자신과 일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는 춤은 일종의 '몸짓 수행'이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승무'는 기교를 부리기 보다 모든 잡념을 떨쳐 버리고 무아의 상태에서 출때 대중들도 함께 삼매에 들 수 있는 춤사위가 나온다는게 이애주 교수의 춤철학이다.

특히 '승무'는 정중동(靜中動)의 미적 구조를 넘어 돈오(頓悟)의 순간을 연상하게 하는 한국무용의 진수이기에 무용가의 법력(力)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돈독한 불심위에서 한동작 한동작 춤사위를 날리는 이애주 교수의 승무는 대중에게 저절로 신명을 불러일으키고 대중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마력이 있다는 평이다. 그래서 이 교수는 사찰뿐만 아니라 국내 각종 문화행사의 단골손님으로 초청된다. 96년 불국사 부처님오신날 전야제 행사로 열렸던 '나라굿 불국정토제'는 이 교수가 공연 말미에 동참한 수천명의 대중을 혼자 진두 지휘하며 탑돌이를 즉석에서 이끌어낸 일화로 유명하다.

"승무에는 인간 삶의 군상인 생로병사와 우주 자연의 이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승무에서 '승(僧)'이란 '대승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말해 나 자신을 포함한 '온 중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승무'는 내 자신을 찾아가면서 타인과 만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선입니다. 따라서 '승무'는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조화되지 않으면 춤이 될 수 없으며,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한때 이 교수의 춤은 시국춤으로 통했다. 그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발언도 무용가의 또다른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주화 시위가 있는 현장에는 항상 그의 춤도 함께 있었다. 특히 민주화 항쟁이 한창인 87년 6월 시청앞에 모인 1백만명의 시민앞에서 강렬한 춤사위로 민중들의 맺힌 한을 풀쳐낸 '바람맞이' 춤은 지금도 국민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돼 있다.

"승무는 몸짓 언어로 표현한 불립문자입니다. 그 속에는 끈질긴 생명력과 역동성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또 얽히고 설킨 업연의 실타래를 기품있고 고고한 자태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춤사위가 곳곳에 들어 있기도 하지요. 이 모두가 우리 민족이 이어받아야 할 정신입니다. 승무속에 나타난 이런 춤정신을 대중들에게 보급시켜 안분지족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바로 춤꾼의 몫이겠지요."

이 교수는 지난해부터 매주 목요일 서울 동산불교대학에서 승무를 가르치며 불교 춤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곳에서는 춤동작 뿐만 아니라 춤 속에 녹아있는 정신도 함께 전수되고 있다. 그 정신은 바로 마음을 비우고 일체잡념을 없애며 선정삼매에 들 때만이 비로소 신명나는 춤사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수강생들이, 춤속에서 배운 선정삼매의 정신을 생활속에서도 소중하게 적용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올해도 이 일은 계속해 나갈 작정이다.

도 올 하반기에 전국 사찰을 돌며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공연과 정기발표회도 가질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연구해온 승무에 관한 자료를 모아 책도 한 권 펴낼 생각이다. 하지만 이애주 교수의 가장 큰 바람은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월드컵과 같은 국제 규모의 행사에서 승무를 통해 한국춤의 진수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다. 여기에 한가지 서원을 더 얹는다면 장삼과 가사, 하이얀 고깔, 외씨버선 등을 싸들고 세계 방방곡곡을 향해 '승무 홍보대사'로 직접 발벗고 나서는 일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이애주 교수는

1947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애주 교수는 8세의 어린 나이에 국립국악원 김보남 선생에게서 무용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다.

그 뒤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거쳐 69년부터 승무를 집대성한 한성준옹(1874~1941)의 손녀 벽사 한영숙 선생의 문하생이 돼 본격적인 승무 수업을 받는다. 이후 78년에는 승무 이수자가 됐고, 77년부터 81년까지 5년간 미국과 유럽지역을 순회하며 한국 전통춤 발표회를 가졌다. 특히 83년 공간사랑의 '한영숙류 이애주 전통무용' 공연은 중간 결산과도 같아 한영숙 선생의 맥을 잇는 후계자로 공인받았다.

9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수백회에 걸친 국내외 행사장에서 승무를 비롯해 살풀이, 도당굿춤 등 한국춤의 진수를 널리 알렸다.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8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 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현대해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원효스님 '唯心'

스님의 법명은 원효(元曉), 법호는 화정(和靜), 속성은 설씨(薛氏), 초명은 서당(誓幢)이다.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압량군 불지촌(押梁郡 佛地村 : 지금의 경산군 자인면)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10세에 출가하였는데 남달리 총명하여 출가 때부터 스승을 따라 경전을 배웠다. 성인이 되어서는 불법의 오의(奧義)를 깨달음에 있어서는 특정한 스승에 의존하지 않았다. 스님은 경학뿐만 아니라 유학(儒學)에 있어서도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었다.

고구려 고승으로서 백제 땅 전주 고대산에 주석하고 계신 보덕 화상(普德和尙)의 강하(講下)에서 〈열반경〉, 〈유마경〉 등을 수학하였다. 영취산 혁목암(靈鷲山赫木庵 : 지금의 통도사 산내 암자)의 낭지(朗智) 화상에게서도 사사하였으며, 당대 최고의 신승(神僧)이신 히공 화상(惠空和尙)에게서도 사사하였다.

34세에 의상과 함께, 당나라 현장 법사와 규기 화상에게 유식학을 배우려고 요동까지 갔지만 그곳 순라군에게 첩자로 몰려 여러 날 옥에 갇혀 있다가 겨우 풀려나 신라로 되돌아왔다.

10년 후 45세 때에 두 번째로 의상과 함께 이번에는 바다로 해서 입당하기 위해 백제국 항구로 가는 도중 비를 만나 산속에서 길을 잃고 해매다 겨우 토굴을 찾아서 하루 밤을 지내게 되었다. 갈증이 나 토굴속에서 고여 있는 물을 떠 마셨는데 물맛이 매우 달고 시원하였다.

그러나 아침에 깨어보니 토굴이 아니고 오래된 공동 무덤이었으며 물을 떠마시던 그릇은 바로 해골이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되었는데 이에 귀신의 작란(作亂)에서 활연대오(豁然大悟)하였다.

유심(唯心 : 모든 사물의 법칙은 오직 한마음에서 일어남)

知心生故種法生(지심생고종법생)
心滅故龕髑不二(심멸고촉루불이)

마음이 생기면 만물의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무덤, 해골물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구나.

활연대오를 한 원효스님은 발길을 되돌려 신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친 사람으로서 또는 거지행세를 하면서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민중포교에 들어갔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화엄경〉을 주석하였다.

스님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 건가, 하늘 받칠 기둥을 깎으려 하네. 誰許沒柯斧爲斫支天柱(수허몰가부위작지천주)"라는 노래를 불렀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만 무열왕이 그 노래를 듣고 뜻을 알았다.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인재를 낳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알아차린 무열왕은 스님을 요석궁으로 들게 하였다. 이후 선사는 설총(薛聰)을 낳은 후 실계(失戒 : 스스로 계율을 파하였다 함)하였다 하여 속복(俗服)으로 갈아입고 스스로 소성 거사(小性居士)라 하면서 광대들이 무농(無弄)하는 큰 박을 본 따 무애호(無碍瓠 : 나무를 깎아 만든 바가지)를 만들어 천촌만락(千村萬落)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염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스님의 일생은 화쟁(和諍)의 교법(敎法)에 의하여 자리(自利)를 구하고 대중교화를 통하여 이타(利他)를 행함으로써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일관하였다.

스님은 인간의 청정한 마음이 현실에 훈습되어 불각심(不覺心)이 일어난 무명업상(無明業相)을 미오한 현실생활 속(俗)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수행함에 의하여 완성된 인격(眞)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전생을 바쳤다.

신문왕 6년(686)에 세수70세 법랍 60세로 입적하셨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누가 자루없는 도끼 빌려줄 건가 하늘 받칠 기둥을 깎으려 하네"

"자, 합장하시고 지장보살 열 번 부르고 법회를 끝냅시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72세의 세수가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 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법회를 마치신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은 요즘도 지장재일 법회만큼은 직접 법문을 하신다. 1월 30일 경국사 지장재일 법회 날에도 스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법단에 오르셨다.

이날 법문은 최근 다녀오신 중국 성지순례에 대한 것으로 시작했다. 1월 21일~27일 중국 구화산과 홍산 일대를 둘러보고 오신 스님은 시쳇말로 따끈따끈한 여행담을 불자들에게 들려주셨다.

킬링필드서 반야심경 독송

"…구화산에는 절이 70여개에 암자가 수백 개라는데 이 가운데 김교각 스님과 얽히지 않은 곳이 없다 합니다. 그곳에 가 보니 감회가 새롭고, 다 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심이 솟아나고 너무 좋았어요… . 내가 암만 해도 본 것 다 말 못하겠습니다. 벌써 법문 시간이 다 갔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닿으면 중국뿐 아니라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큰스님들이 공부하신 자취를 더듬어 보세요. 제 법문 듣는 것보다 훨씬 큰 공부가 될 겁니다."

매섭던 겨울 추위도 잠시 쉬어가는 듯 서울 정릉 3동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경국사에 봄 기운이 찾아들었다. 돌계단 위에는 살얼음이 자리를 잡고 도량 곳곳에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따뜻한 햇살에 기세를 잃어가고 있었다. 스님과 봄 기운을 느끼며 도량을 거닐었다.

스님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도 다녀오셨단다. 영화 '킬링필드'의 무대가 되었던 곳에도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사람의 해골로 쌓은 탑을 보고 그 앞에서서 〈반야심경〉을 독송하시며 원혼을 위무하셨다 한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인간은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우리 본심은 선악 이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본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향방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음 하나 잘 쓰면 성인이 되고, 조금만 비뚤게 쓰면 악인이 될 수가 있는 그 이치 말입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사람이 악해지려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새삼 보고 느꼈습니다. 죽인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연민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반야심경〉 독송을 하였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스님은 다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듯 눈을 지긋이 감으셨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건강하셔야 그렇게 먼 외국으로 성지순례도 다녀올 수 있을 텐데 특별한 건강비법이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뭇 진지해진 분위기를 흐트리며 여쭤보았다. 뜻밖의 질문에 스님은 껄껄껄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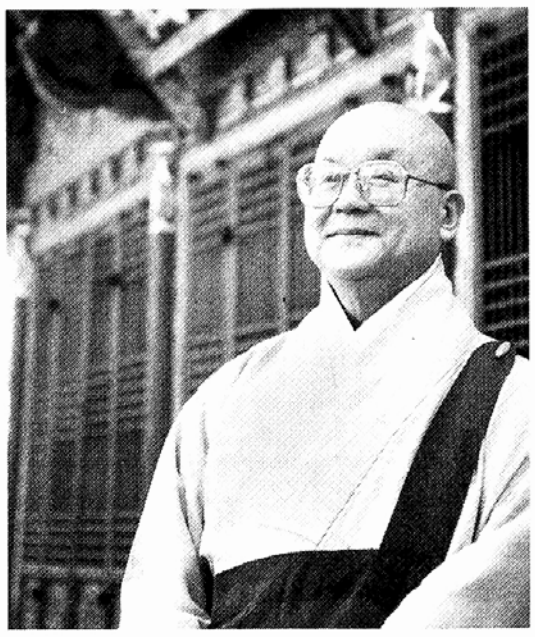
◇인환스님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참선과 108배 등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뭘 얻으려 하지말고 참회를

가까이서 뵌 큰스님

인 환 스 님 (동국대 명예교수)

마음 어떻게 쓰냐 따라 삶의 향방 순식간에 바뀌어



◇20년 가까이 주석해 온 서울 정릉 경국사 앞마당에 선 인환스님.

새벽은 '중노릇 하는 시간'

"마음이 젊으면 육체도 따라가는 법이요. 무엇이든지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뭐 있겠소. 자가용 안타는 대신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일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일을 대하고, 그러면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지. 요즘은 한창 젊었을 때보다 조금 덜 먹는 게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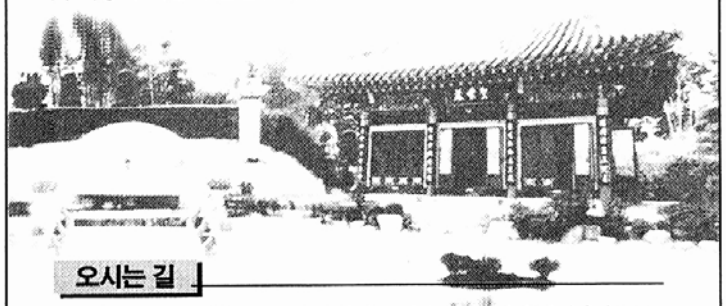
스님은 요즘도 매일 새벽 4시면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부산 선암사에서 출가한 후 50년 넘게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경전 독송과 참선, 108배 참회 수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를 "내 중노릇 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유학시절에는 공부하느라,

정월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와 더불어 조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IC. 서김제IC에서 5분거리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388번지 불거촌

성모암 대중일동

참 선 교 육

참선은 아무나 하나 - ♪♬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 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

2권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全提와 單提,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 임제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3권 선사 백문백답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1, 2, 3권이 3월에 출판됩니다. 먼저 인쇄해두고 판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교재이기 때문에 꼭필요한 분에게만 보급하기 위하여 300질 한정판으로 제작하오니 구입에 뜻이 있는 분은 미리 송금한 후 전화주시면 3월에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대량 제작 후 불교서적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격 1질(3권) 3만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 禪)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736-4339

※ 56기 참선교육 : 2002년 3월 12일(화) ~ 4월 9일 (화) - 5회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출세를 하세요!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승려 및 포교사 2기 학인 모집

Ⅰ. 승려 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10명) 1년 수료과정
자 격 - 나이 제한 없음, 중졸이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Ⅱ. 포교사 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10명) 3개월, 6개월 과정
자 격 - 연령 학력 불문, 포교원, 철학원 환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 교육방법 : 우리말 경전 및 의식으로 단기간 내에 승려 및 포교사 자격 취득
- 특 전 : 1. 본 대학 수료 후 종단내 사찰에서 100% 수용
  2. 입학금 수업료 일체 무료. 단, 의식비 월 10만원
- 문의전화 : 033)371-7751~3 팩스 : 033)671-7754

※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종립 근본불교 승가대학

참선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

유행좇듯 방법찾으면 실패
마음 조용해져야 바로보여

교수시절에는 학교에서 강의하느라 여느 스님들처럼 사찰의 중요 행사를 직접 행하지 못했던 스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중노릇이 바로 엄격한 자기 다스림이라 믿었고, 매일 아침 두시간 만큼은 온전히 자기 수행에 바쳤다. 얼마 전까지는 새벽 예불에도 직접 참여했던 스님은, 지난해 새벽 예불에 나가다 넘어져 다친 이후 방에서 혼자 예불을 올리신단다.



◇모든일을 행함에 있어 마음을 바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인환스님.

경내를 돌아 다실에 들어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 주시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반인들에 선實修 강의

"내가 동국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정년 때까지 지도했던 과목 중에 '선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선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는 강의인데, 사실 기운이 넘치는 젊은 학생들이 정각원에서 무념무상의 경지를 향해 앉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단 1분 만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내 수업을 끝까지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도 바로 앉는 법 하나만은 제대로 배웠을 겁니다. 바로 앉아 자신을 살피는 일조차도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선실수 강좌를 맡고 있습니다."

기자도 10년 전 스님의 강의를 들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스님의 선실수 강의시간에 맞춰 가느라 아침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 지각을 해서 몰래 뒷문으로 들어가기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학점을 따기 위한 수업이라고만 생각했지 스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생각에 뒤늦은 후회가 밀려들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다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하는 것도 누가 이 수행법이 좋더라 하면 그쪽으로 확 돌아가고, 또 누가 아니다, 이게 더 좋다 하면 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럽니다. 좋은 것은 동서남북 누가 하더라도 다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원리대로, 꾸준히 믿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걸 계속 이어 나가는 게 정진입니다. 꾸준히 끈기를 갖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효과 아닌 효과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두번 해 보고는 눈에 보이거나 제 맘에 드는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으면 곧 그만두곤 합니다. 수행하려는 마음가짐부터가 어긋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행은 효과를 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건강법인 양 효과만을 따지다 보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금하다 말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 자신만 해도 겨우 1박2일 수련회에 갔다와서도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집안문제로 복잡해진 마음을 다스려 보겠다고 〈금강경〉을 한번 읽고서도 큰 공덕이 있겠지 하는 상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이다.

수행한다는 그 마음조차도 버리고, 수행에 임해야만이 진정한 수행이 되는 것을 왜 우리 중생은 매일 배우고 또 배우면서도 금새 잊어버리는 걸까. 무명에 싸인 중생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스님께 이떠한 자세로 수행에 임해야 하는지 다시 가르침을 구했다.

흔들리는 마음 정념으로

"불교 공부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무엇을 얻는 걸로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엔 이미 부처님과 중생, 한마음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한마음 밝은 것을 지금 쓰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갖 번뇌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예요. 바로 보고 살기 위해서는 그 번뇌 망상 가득한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로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법 가운데 참선이야 말로 가장 수승한 방법입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흔들리는 마음을 정념으로 돌리고 또 돌리는 수행을 하다보면 더 이상 끄집어낼 번뇌 망상이 없어지게 될거예요.

내 마음이 스스로 조용해지니, 세상이 조건 없이 바로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眞)참회하는 일이 바로 수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무얼 얻으려고, 당연히 얻어지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본래 자신의 자리로 마음을 돌리고 또 돌리세요. 모든 관심사를 '수행의 중심'에 돌리고 돌려 정념에 이를 때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리고 또 돌리세요"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인환 스님은?

日 동경대 文博, 동국대서 20여년 후학 양성

1931년 함경북도 원산에서 태어났다. 52년 부산 선암사 선원에서 출가했으며, 56년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67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일본 유학을 떠나 75년 스님의 신분으로는 국내 최초로 동경대에서 불교사상사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76년 캐나다 토론토 대각사를 창건했으며, 82년부터 96년까지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스님은 대학 강단에서 물러났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강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10년째 부산 화엄불교대학에서 매달 2회 어록 강의와 참선 실수를 지도하고 있으며, 2월 한 달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사찰 관음사에서 현지 교민불자들을 위해 강의한다.



허주스님의
스 님 이 야 기
허운스님

동해 해조음같은 염불소리
포교생활 10년…시종여일

출가의 인연은 참 묘한 것이다. 스님들의 입산 동기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나는 우연찮게 먼저 출가한 집안 육촌형을 따라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육촌지간은 먼 것 같지만 기실 아주 가까운 혈연이다. 윗대의 조부되는 어른끼리 친형제이니 아주 가까운 인척이 아닌가.

허운(虛韻)스님. 세속의 연배는 나보다 두 살 위인데 어릴 적부터 보아온 그의 인품은 아마 열 살은 더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 부분이 있었다. 성격이 자애로워서 집안의 많은 형제들이 그를 무척 좋아했는데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방학때가 되면 큰집에 가서 그와 함께 살다시피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연유로 30년 가까이, 그것도 절집에 와서도 사형사제의 인연으로 지속되고 있다.

처음 동진출가(童眞出家)를 결심하고 통도사 강원에 학인 신분으로 공부하던 허운스님을 찾아갔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낡은 걸망 하나 메고 집을 찾았던 스님의 모습을 지울 길 없어 몇 날 며칠 열병을 앓고 내린 결론이다. 어찌나 야박하게 문전박대를 하던지 그날 이후로 그에게 서운함을 느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유는 너의 자리가 이곳은 아니라는 거였는데 아무튼 막무가내로 나의 결심을 굽히지 않자 체념한 듯 은사스님께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절집에 와서도 사형사제의 인연을 맺게된 것이다.

허운 스님은 어려서부터 나이에 비해 영감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성품이 조용하고 차분해서 그런지, 아니면 타고난 목청에 선비같이 깔끔한 외모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점잖은 스님을 가리켜 '영감' 이란 별칭이 붙은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스님의 독경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 나이에 어떻게 저런 음색을 갖추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런 소리를 갖게되기 까지 얼마나 피나는 고통과 노력이 동반되었을까. 스님의 표현을 빌자면 목에서 핏덩이가 몇 번은 나왔다고 했다. 말하자면 어려서 목청이 터졌다는 얘기인데 그 염불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지금도 신심이 절로 난다. 예전에 허운스님이 하는 새벽 도량석 소리는 동해의 해조음(海潮音) 같았다.

중이 염불 잘하는 것이야 뭐 특별할 것 까지는 없지만 그 소리에 의해서 심신이 다 맑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은 늘 오래도록 가까이 보아도 변함없는 그의 성품 때문이다.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범어사, 통도사 강원에서 중강(仲講) 소임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훨씬 많았던 학인 스님들을 통해서 그 인품이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허운스님은 늘 자비스럽다. 그와 함께 있으면 시비가 없다. 그 누구의 험담도 한번 들은 바가 없다. 그 어떤 거창한 구호도 그의 입을 통해 들은 적이 없다. 그저 묵묵히 주위를 걱정하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어 주변 어려운 스님들에게 베풀기를 주저 않는다. 워낙 시비를 가까이 않는 성격이라 도시생활이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포교당에 자리한지도 어언 10년은 되는가 보다. 포교당이란 곳이 중으로서는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 많은 곳이다. 도시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출가 본연의 정신에서 때때로 멀어질 수 있고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내면이 건조해질 수도 있는데 주변에 대한 그의 시선은 언제나 따뜻하고 자비스럽다.

요즘 우리 절집 정서는 자비문중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치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해버렸다. 종단 정치상황을 비꼬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마음 한구석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는 허운 사형을 보면 그나마 많은 위안이 된다. 포교당의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면서 주변의 여러 스님들



에게 그 따뜻한 체온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절로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진다.

얼마 전 첫째 사형인 법주스님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대뜸 하는 말이 "허운스님 핸드폰 하나 바꿔주라. 하도 오래 돼서 배터리 충전을 해도 한두 시간도 못간대. 지 핸드폰이나 바꿀 일이지 웬 용돈을 이렇게 주고 가냐…"

폴더형식의 핸드폰이 나온지 오래인데, 허운스님은 아직도 탱크(?)라 불리는 검정색의 덩치 큰 핸드폰을 쓰고 있다. 포교당 주지 소임을 맡다보면 요긴하게 쓰이는 핸드폰인데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닌가보다.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구입하기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거운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 보다 못한 법주사형이 바꿀 것을 권해도 괜찮다고 웃어버린다.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씀씀이에 늘 왜소해지는 내 자신을 숨길 수 없을 때가 많다.

상주에 내려왔다가 오랜만에 셋이서 이틀 밤을 묵고 돌아가는 허운스님을 보고, 독백처럼 읊조리던 법주 사형의 말이 떠오른다.

"허운이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 함창 자광사

귀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귀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몸속 독(노폐물)을 빼자
수목의 힘으로 온몸을 상쾌하게 !!
"발바닥에 붙여 몸속 독을 빼는 배독요법" 일본 화제의 상품!!
- 부모님께 가까운 친지에게 건강 선물 -
44,000원/30매 국산
50,000원/30매 국산골드
50,000원/30매 스즈끼- 일본산
효과 없을시 환불 함
▶ 발과 불편한(목, 어깨, 허리, 팔 무릎 등) 부위에 사용 경제적인 입니다.
▶ 자고나면 몸속 노폐물이 누렇게 변한 것을 직접 확인
▶ 취침전 발에 붙여서 상쾌하고 편적이게 이여 주는 건강상품
▶ 일본 이트 상품 / 국내 인기 상품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께 효도선물 몸이 붓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피로하신 분 종일 서서 일하는분(매장근무), 산후조리, 운동선수 /항상 피곤한분, 각종 사고 후 / 화공약품 및 유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 / 이 미용실 등등
모 집
대리점 취급점
각 지역 홍보 사원
가자목초 / 가자라이프 www.GAJA.TV
(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이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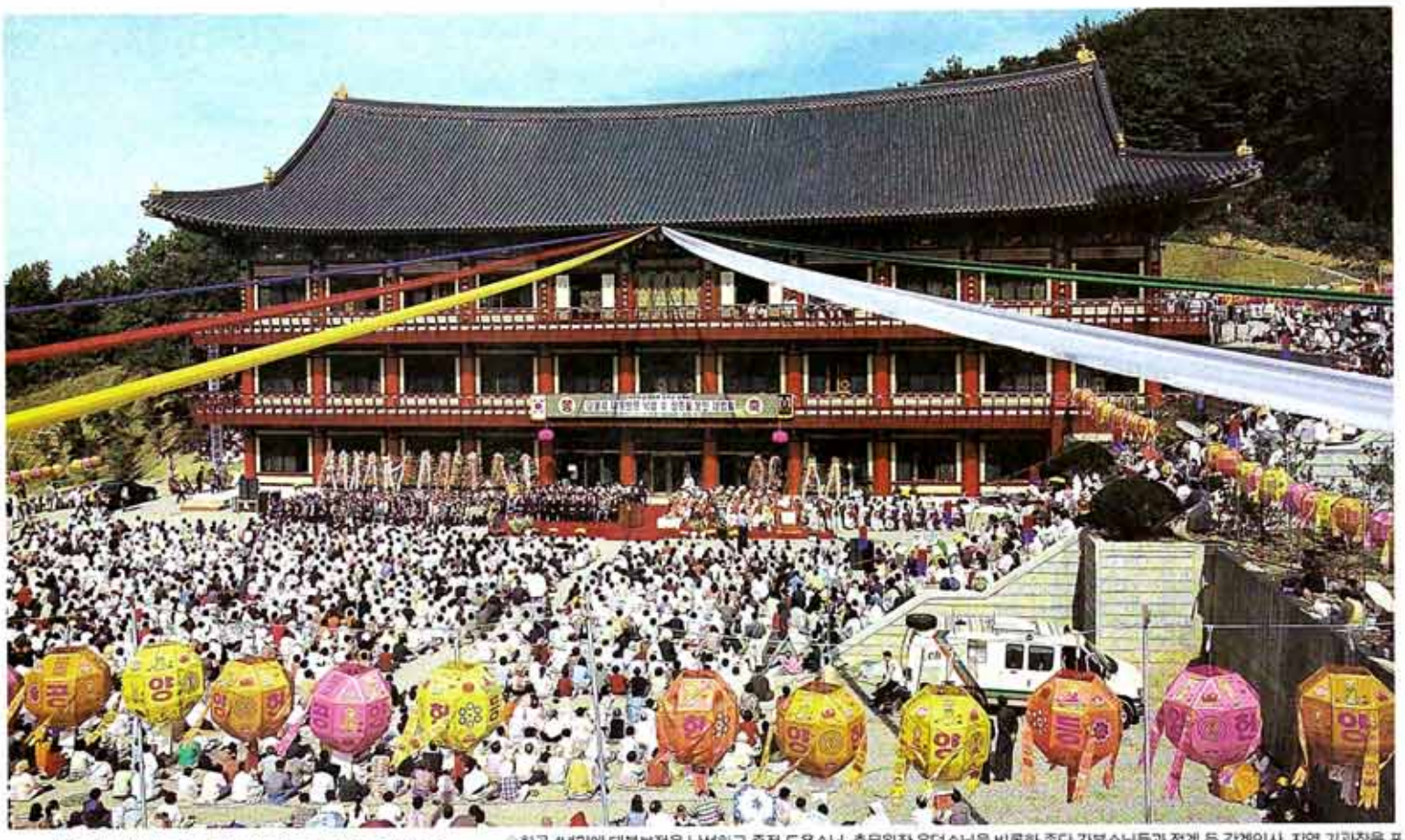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2학년도 봄학기 불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모집과정

과 정 명	세부과정명	과목(반)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야 구분
교양불교	불교란 무엇인가?	I	권 기 종	1학기	주간
		II	최 봉 수	1학기	주간
	참선수행	I(참선법의 이해와 실제)	인환스님	1학기	주간
		II(참선공안의 참구와 실참)	인환스님	1학기	주간
불교연구	경전연구	維摩經	권 기 종	2학기	주간
	기초한문	擊蒙要訣	심 재 동	2학기	주간
	한문해석법	金剛經	심 재 동	2학기	주간
	논어강독		이 중 찬	2학기	주간
불교전문	불교전문교육	불교문화의 이해	최 종 석	5학기	주간
		유식사상	김 사 업		
		초기대승불교	차 차 석		
		경전강독(I)	김 효 귀		
박물관교육제정	불교박물관대학		문 명 대	2학기	주간
문화·예술	불교전통꽃꽂이		정 진 희	2학기	주간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불교전문교육과정은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에 한함)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2월 1일(금) ~ 2월 28일(목),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와 사진 2매
※불교전문교육과정은 주민등록등본 및 고졸이상의 학력증명서 각 1부 추가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02) 2260-3728~9 / FAX :(02) 2260-3730
홈페이지 : http://dgucc.dongguk.ac.kr/~soedu

전통가람 양식 대광사 수도권 최대 사찰



대불보전 낙성 및 삼존불 봉안 대법회

◇착공 4년만에 대불보전을 낙성하고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들과 정계 등 각계인사, 지역 기관장을 포함 사부대중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해 10월7일 낙성식과 삼존불 봉안법회를 성대히 봉행했다.



◇대광사 10년불사 조감도. 불사가 완공되면 대법당 대불보전 중각 누각 일주문 유치원 전통찻잡이 들어선 한국불교 전통양식의 수도권 사찰로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수지. 92년부터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 외곽에 형성된 이들 신도시 6곳에는 각각 많게는 40만~50만명, 적게는 수만명에 이르는 주민이 살고 있다. 신도시 인구 중에는 공무원 교수 언론인 예술가 샐러리맨 등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종교단체들마다 교세 확장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각 종교단체들은 종교 전파를 위해 십 수년 전부터 종교부지 확보 등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그 결과가 사찰(교당) 숫자로 입증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종교 시설이 총 780개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교회가 715개로 91.6%를 차지하고 사찰은 5.1%인 40개, 성당이 1.9%인 15개 등으로 나타났다. 사찰과 포교당을 합쳐도 교회의 1/18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수지 시민까지 합쳐 약 50만명 정도가 한 생활권에 살고 있는 분당은 규모면에서 신도시를 대표하고,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주목하게 된다.

현태종은 2대 종정 대충스님의 뜻에 따라 20여년전 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전통가람의 사격을 갖춘 사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서울 관문사 자리는 지역 여건상 전통가람이 들어설 수 없었고, 따라서 대신할 사찰 부지를 찾았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90년 분당 신도시 건립이 발표되면서 현태종은 분당 불곡산 자리에 종교부지 7천평을 불하받았다. 지명 불곡산(佛谷山) 그대로 부처님 계곡에 절이 들어서는 것이 마땅했다. 또한 풍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여다보아도 좌청룡과 우백호가 밥상을 받은 격이라 찾는 대중이 늘 넉넉하게 살수 있다는 덕담들도 무성했다.

무엇보다 대광사가 자리한 구미동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3년여 공사끝에 지난해 3월24일, 스님들을 중심으로 입주해 종무부터 보기 시작했다.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 법요식이 치러지기 전이었으나 곧이어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는 데다 지역 신도들의 조속한 개원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식 낙성법회도 하기 전이라 사찰 개원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전이었음에도 신도들의 참배와 기도, 부처님오신날 등접수 등 적극적인 호응으로 대광사는 첫 발을 내디딘 신도시 포교에 자신감을 얻었다.

처음으로 가졌던 안거기도 낮시간에 1백여 신도들이 동참해 용맹정진했고, 부처님오신날 법요의식을 여법하게 치러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7일, 대광사는 2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불보전 낙성법회와 삼존불 봉안법회를

2011년 회향 10년 불사 추진중
세계 최대 청동관음상 법당 봉안

봉행했다. 대불보전 낙성 및 삼존불 봉안 대법회는 대광사 불사 10년 회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광사 불사의 원력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였다.



▲현태종 종정 도용 스님(앞)과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3백평 규모의 대불보전에는 석가모니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을 봉안했다.



신도시 포교 신기원… 지역 문화 공간 활용

지역별로 보면, 인구 40만여명이 살고있는 일산은 교회가 357개인데 반해 사찰은 21개이며, 39만8천여명의 인구가 사는 분당은 교회 126개에 사찰은 10개에 불과하다. 양적 팽창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가 된다고는 볼수 없으나, 이같은 엄청난 수량의 차이는 불교계의 미약한 포교 의지를 극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포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같은 현실에서 현태종이 조성하고 있는 분당 대광사는 신도시에 세워지는 한국불교 전통가람 양식을 갖춘 최대규모의 사찰로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해 10월 낙성법회 때 당시 종정 대충스님은 "대광사는 신도시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교전략을 세워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습니다. 분당 대광사는 그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상징 사찰입니다"라고 말했다.

대광사 주지 운덕스님(현태종 총무원장)은 대광사 불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종단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이 주지라는 점만으로도 종단에서 바라보는 대광사의 위상과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신도시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아무리 원력이 투철하다 하더라도 개인이 나서서 성과를 거두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재력 인력 등 포교를 위한 제반 상황이 다른 지역과는 달라 신도시 포교는 종단차원의 체계적인 계획과 사명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양 구인사가 총본산인 현태종은 서울 수도권에 거점 중심사찰 건립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레 신도시 포교에 명실상부한 '문열이'가 되었다.

"대광사 불사는 2대 종정이신 대충 대종사의 간절하신 원력으로 출발했습니다. 수도권에 한국불교를 상징할 수 있는 전통가람 양식의 사찰을 세워야 한다는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어 10년전 이곳 대광사 부지를 물색했던 것입니다. 대충 종정 스님은 이 자리를 직접 서 너 차례나 둘러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은 부지를 보시면서 큰 웃음을 지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기쁨을 먼저 맛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운덕스님은 지난해 10월 대불보전 낙성법회때 당당하게 "제불조사가 천탄하실 것"이라고 법문했다. "종단의 3대 지표가 대중불교의 실현, 생활불교의 실현, 애국불교의 건립입니다. 이는 윤리도덕의 뿌리내림과 국민정신의 올바른 계도를 이뤄내는 것을 기반에 둔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의 전통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민족의 정신문화 또한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단의 3대지표를 실행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대광사는 불자들에게는 수행과 신행의 도량이 될 것이며, 일반인들에게는 잘시 관광차원이라도 머물수 있는 공간이자 전통문화를 느낄수 있는 공간이 될것입니다."

운덕 스님(대광사 주지)



"수도권 신도시가 갖는 문화 사회적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 종단은 일찍부터 신도시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교전략을 세워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습니다. 분당 대광사는 그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상징 사찰입니다."

"대중·생활 불교 거점사찰로"

무원장은 대광사 불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종단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이 주지라는 점만으로도 종단에서 바라보는 대광사의 위상과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신도시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아무리 원력이 투철하다 하더라도 개인이 나서서 성과를 거두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재력 인력 등 포교를 위한 제반 상황이 다른 지역과는 달라 신도시 포교는 종단차원의 체계적인 계획과 사명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양 구인사가 총본산인 현태종은 서울 수도권에 거점 중심사찰 건립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레 신도시 포교에 명실상부한 '문열이'가 되었다.

"대광사 불사는 2대 종정이신 대충 대종사의 간절하신 원력으로 출발했습니다. 수도권에 한국불교를 상징할 수 있는 전통가람 양식의 사찰을 세워야 한다는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어 10년전 이곳 대광사 부지를 물색했던 것입니다. 대충 종정 스님은 이 자리를 직접 서 너 차례나 둘러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은 부지를 보시면서 큰 웃음을 지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기쁨을 먼저 맛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운덕스님은 지난해 10월 대불보전 낙성법회때 당당하게 "제불조사가 천탄하실 것"이라고 법문했다. "종단의 3대 지표가 대중불교의 실현, 생활불교의 실현, 애국불교의 건립입니다. 이는 윤리도덕의 뿌리내림과 국민정신의 올바른 계도를 이뤄내는 것을 기반에 둔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의 전통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민족의 정신문화 또한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단의 3대지표를 실행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대광사는 불자들에게는 수행과 신행의 도량이 될 것이며, 일반인들에게는 잘시 관광차원이라도 머물수 있는 공간이자 전통문화를 느낄수 있는 공간이 될것입니다."

인터뷰

도재 스님(대광사 부주지)



최근 십수년 동안 불교계 건축불사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종단으로 현태종을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현태종의 큰 건축불사 가운데 비중을 둔 서울 관문사, 구인사내 대조사전 건립과 현재 대광사 불사의 현장 진두지휘를 맡고있는 대광사 부주지 도재스님(총무원 재무부장)은 그래서 '불사의 귀재'로 알려져 있다.

"소임 때문에 불사를 챙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제 임무입니다. 불사기간이 17년으로 길었던 대조사전 건립이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나무 하나 하나부터 기와 한 장까지 오직 신심과 정성으로 지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NHK방송국에서 조차 대조사전의 기와 제작등 불사를 취재해 갔을 정도였으니까요. 서울 관문사 불사때는 주위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일이 당시 어려움이었으면서도 잊지못할 불사 경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세태가 바뀌고 전법 포교 방식도 그에 발맞춰 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실감했지요."

지난해 10월 낙성법회 이후 첫 부처님오신날을 위해 법써부터 봉축 제등 행진을 위한 코끼리 장엄물을 제작하고 있는 대광사에서 도재 스님의 행정력을 엿볼 수 있다.

"처음 대광사를 개원하고 많은 신도들에게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역 가까이의 절이 드물어 멀리 서울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었다고요. 이곳은 지역특성을 먼저 잘 연구해 포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곧바로 2층으로 된 전통찻집을 현재의 대불보전 앞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쉼터로 대광사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광사를 조성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의 포교의 첫 단계라고 강조하는 도재 스님은 지역에 맞는 포교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불사 귀재 … "지역 특성 맞게 포교"

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광사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포교의 첫 단추가 된다는 분석에서다.

또하나 중요하고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공간으로 어린이 놀이방을 꼽고있다. 법회때마다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불편을 겪고있는 현실을 고려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대로된 놀이방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절에 올 수 있다는 부수적인 결실도 기대할 수 있다.

차근차근 추진한다는 큰 그림으로 다시 10년 불사에 착수한 대광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가족과 함께"라는 포교전략을 하나하나 이행해 가고 있다. 대불보전 낙성에 맞춰 대법당 자리 뒤쪽으로 1천여평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대지를 총 8천평 확보했다. 사찰버스 2대가 30분 간격으로 분당지역을 순회하며 신도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가족법회도 갖고 있다. (031)715-3000

조상들을 위하는 게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것

천도의 의미는

문 천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천도가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지은 모든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극락에 왕생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전생의 많은 문제들도 모두 해결이 되었다는 뜻인지요.

답 천도를 시킨다는 것은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 석방이 되게끔 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을 무마시켜서 다시금 인도 환생하라고 천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게 하기 위한, 은혜를 갚고 묵은 빚을 갚는 것이 재(齋)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사람이 죽으면 악행을 했든지 선행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서를 해결해 버리고, 여러분이 땅을 갈고 돌을 주워내고 골라 놓는다면 스님네들은 거기다가 씨를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조상님들을 써 가지고 오면 그게 밭을 갈고 땅을 고르는 거나 같은 거죠. 재를 지내려고 정성껏 마련해 가지고 오는 것이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밭을 골라 놓으면 스님들은 그 밭에다가 불씨를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환생을 해서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이 얼마나 정성껏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잣집으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또 깡통의 차원으로 태어나느냐? 선신으로 태어나느냐하는 문제가 다 마음에 달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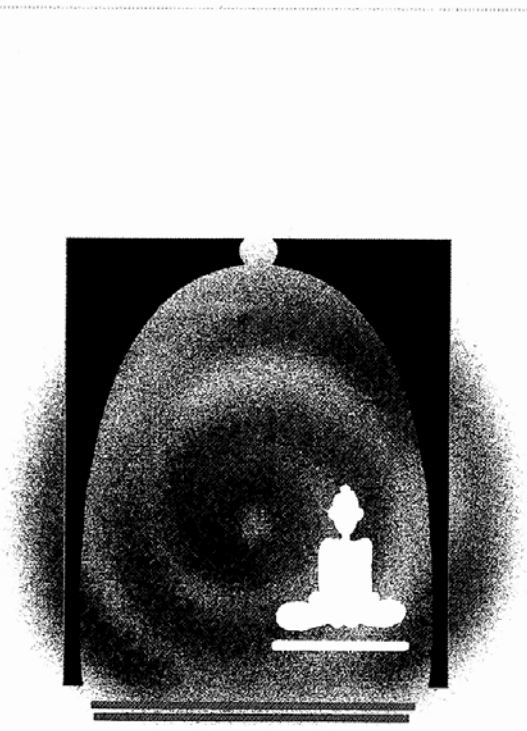
예를 들어 어린애를 낳아 놓기만 하면 다 사회인이 됩니까? 기르고 가르쳐서 완전하게 키워야만 어른입니다. 그럴 때까지는 뒷바라지를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또 끝이 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했던 것이 자식이 다시 부모가 돼서 끝이 나고,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이름해서 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천도재를 지냈는데 왜 또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윗대 조상들을 아버지가 천도를 시켰다면 천도된 분들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나왔다 할지라도, 천도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시기가 있고, 위에 올라가 앉아서 '아! 저놈은 참 착하구나.' 하고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만 부모입니까? 정말 부처님 자리와 한자리를 했다 할 때는 공을 들이고 촛불재를 하고, 백종을 지내고, 등을 달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조상들을 위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로 돌아가니까, 일체 제불과 더불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자식 내 자식 따질 것이 없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높은 판사로 있다면, 내 자식들만 자식이라고 해서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냥 무죄로 처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고, 아래서 허덕거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천도재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도환생하게 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인도환생이 된 후에도 마음법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하도록 원하는 자식들이 그 은혜를 갚는 마음이 아주 끝간 데 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밥 한 번 먹었다고 어떻게 밥을 안 먹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 배우면서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고, 업을 면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잘 생각하고 지극하게 수행해서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죽으면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새로 의복을 갈아입고 나오는 때라 교차로가 되거든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더 배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죠. 모습이 없으니까 부딪침이 없고, 부딪침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꼭 이 도리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종을 울리는 뜻은

문 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대종을 울리고, 법당에서도 종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종을 울리는지 숨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 절에서 종을 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 종소리를 듣고 귀가 뜨이고, 눈이 열려서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섭리를 알아라. 그래야 영원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뜻으로 법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듣게 되는 거죠. 종을 치지 않으면서 종을 치고, 종을 치면서 종을 안 치는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불을 천 번을 하고 경을 만 번을 읽기보다도, 만 번을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생각을 잘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님들은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의 상호를 우러러보면서, 또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자 선장이 자기 머리를 치는 뜻으로 목탁을 치고, 종소리를 듣고 깨우치게 한다는 뜻으로 듣는 것이며, 심안이 밝아지게끔 부쳐님 상호를 보면서 예불을 올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술 못 마셔

문 신문으로 스님의 말씀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부드럽고 유연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도 항상 술자리가 부담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없고, 절친한 친구도 없습니다.

남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저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한 잔만 마셔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괴로우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술자리는 힘이 듭니다. 생활 중에도 신경이 쓰이고 대인관계도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대장부의 길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에겐 우스운 얘기겠지만 저에겐 아주 큰 문제이기에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스님의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답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완벽하다면 이게 아쉽다, 이게 부족하다, 이게 안된다 해서 내 마음이 거기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안되는 것을 참 나라는 근본, 그 해맑은 마음에 탁 일임하는 그러한 완벽한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공에 의해서 다 조절이 되니까요.

진짜로 몸의 체질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맡겨 놓고 도로 뺏어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될 텐데 진짜로 놓을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맡겨야 마음에서부터 두뇌로 올라와서 두뇌에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모든 생명체들이 작용을 해줍니다. 이래서 몸을 개선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떠한 병 증세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골수로 올라가서 골수에서부터 사대로 통신이 되고, 사대에서 통신이 되면 다시 모여서 골수로 올라가서 호르몬을, 모든 것을 분배를 시킵니다. 그래야만이 적당한 체질로 바뀔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진짜로 맡겼으면, 주인한테 맡기든 또는 머슴한테 맡기든 봐서 맡길만한 사람이면 딱 맡겨놓고 그것을 참견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를 맡겨 놓고 '못 믿겠어' 그러고는 도로 뺏어오고 그러니 그게 됩니까? 그와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적중히 생각하고 적중히 화살을 꽂으십시오.

그러니깐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해서 생활의 자유인으로서 체질도 바꿀 수 있지마는 내 마음도 바꿔서, 팔자나 운명 같은 것이 붙을 자리가 없다, 언어도 붙을 자리가 없다, 병이 붙을 자리도 없고, 업보도 붙을 자리가 없고, 죄가 있다는 것도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진정 믿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철두철미한 마음 모습 없는 자기를 믿는 거야. 그게 에너지야. 부처님께서 별을 보고 깨달으셨다는 건 자기가 별성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성이다 이거야. 자기 모습 아닌 자기, 진짜 자기를 찾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라는 거야.

그리고 불교에 회의가 든다고 했는데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고생 하며 최선을 다 해서 소임을 마치셨으니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마음을 내야 하는데, 자식들은 하루라도 더 사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러니 정말 어머님이 좋은 곳에 태어나서 자유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극하게 관해 드려. 알았지?

왜 이성운이 없는지…

문 저는 올해 만 29세 되는 남학생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 저 나름대로 어긋나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계 쪽은 고등학교 때 눈을 떴는데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중국 쪽에서 많이 윤회를 하였으며 심지어 히말라야 쪽에서 가사를 입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셨다고도 하시더군요.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이생에 전 이성 운이 별로 없었습니다. 스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왜 아직까지 여자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쩌면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일을 알지 못하는 중생인데다, 당장 근 10여 년의 외로움과 연세 드시는 부모님이 저를 조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는지요?

답 법우님이 그래도 수 없는 억겁 동안 진화되어 나오면서, 선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연이 없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손수건 하나를 들어도 인연입니다. 손수건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손수건이란 이름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주니까 바로 손수건이라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한철 동안의 만남인데, 이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느냐 구덩이로 들어가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에 인의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악한 생각을 갖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더불어 같이 내면이나 외부 모두에 직결되고 가설되어 있는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세요. 외롭다는 생각도 참으라는 게 아니라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말며, 진실로 맡겨 놓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인위적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아마 나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미묘한 도리를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실험해 보세요. 실험을 해보지도 않고 나에게 맞는 인연이 오기만을 백 세 날을 기다린들 오겠습니까?

인연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한 생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 억겁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됐다가, 짐승도 됐다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근근덕신 살아갈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깨우치고 본다면 구경선에 올라가서 평등공법에 이르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이 그저 싱긋이 웃고 살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깨우치게 되면 아주 밝게 웃을 수 있고, 아주 진하게 울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돼요. 값싼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진한 자비를 말씀드리고 싶군요. 모든 사람이 욕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한 사랑은 자비예요. 더럽고 깨끗한 거를 떠난, 안 그런가요? 모르겠걸랑 그렇게 생각하고 배워요.

인간 육신의 욕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살려고, 의지로 할 수 있는 둥지를 만들려고 모두 야단이지 진짜 사랑은, 죽어가든 병신이 되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동체로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자비예요. 그래서 아주 진정한, 높고 낮음이 없는 정 때문에 살고 죽어야 한다 이 소리예요. 사랑보다도 정이 깊다면 자비가 돼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나간다면 영원토록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들이 한 손이 돼서 돌봐주는 진정한 자비가 생겨요.

그리고 법우님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차원이 높아진다면 법우님에게 맞는 인연도 차원이 높아져서 다가선다는 것을 알고 마음공부 열심히 하세요.

조건없는 사랑을 해야 조건없는 사랑이 다가와

팔자 · 운명 탓하기 앞서 마음 계발해야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모바일시대 '개막' …휴대전화로 불사·법회 안내 가능

본사 · 지우커뮤니케이션, '상황종무 프로그램' 무료 보급



그래픽=김영민

스님이 보낸 문자메시지

경북 왜관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세등스님은 2월 16일 오후 3시 핸드폰이 있는 신도들에게 "내일 오전 11시 일요법회가 봉행됩니다. 초발심을 주제로 법문할 예정이니 바쁘시더라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용실을 경영하는 강사자월 보살(50 · 구미시 사곡동)은 잠시후, 스님으로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법회 일시와 법문내용 등을 확인한다.

다음날 오후 2시, 집안일로 부득이 일요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박상낙향 보살(47 · 경북 구미시 송정동)은 스님이 보낸 법문 내용을 핸드폰으로 받아보고 다음주에는 꼭 일요법회에 동참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이미 핸드폰은 현대인의 필수품. 핸드폰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종무관리프로그램이 사찰 방송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젠 사찰에서도 법회안내, 불사 등 사찰 행사를 신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일이 엽서나 편지를 보내는 작업이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지우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진한승)이 무료로 보급하고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상황종무관리(모바일버전 무료배포판 · 이하 상황)프로그램'은 기존의 종무관리프로그램에 모바일 기능을 탑재해 각각의 사찰이 하나의 방송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종무소가 방송국으로 변해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찰에서 법회일정, 법문 등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원폴이메일을 통해 신도들에게 보내고, 신도들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다. 기존 핸드폰 문자 메시지는 40자 밖에 못 보낸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황'의 원폴이메일을 이용하면 많은 분량의 문서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사찰에 등록된 모든 신도뿐만 아니라 법회참석자, 이달의 생일자 등 특정인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 기존의 엽서나 편지는 중간에 사라지거나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자메시지나 원폴메일은 핸드폰이 있는 사람이면 본인에게 직접 메시지가 전달되고, 확인여부까지 알 수 있어 우편을 이용하는 것 보다 효과가 더 높다.

문자메시지로 신도에 알려
음성·음악·벨 등 서비스 다양



◇상황종무관리의 메인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직접 찾아와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는 시스템이지만 '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텔레비전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방송프로그램들이 흘러나오듯이 핸드폰만 켜면 사찰에서 보내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뜬다는 것이다. 문자는 물론 음성과 음악, 벨소리 전송도 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님의 법문서비스, 독경이나 법구 소리를 활용한 모닝콜서비스, 불교교양대학 운영 등을 현실화 할 수 있다. 즉 사찰이 신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 방송국 기능을 하게 된다.

어떻게 설치하나

통신료 선납하면 프로그램 CD 우송

모바일 기능이 탑재된 '상황종무관리(모바일버전 무료배포판)'는 현대불교신문사(02-722-4162)에서 무료로 보급한다. 다만 모바일 기능의 이용시 부과되는 통신료(문자메시지 1건당 30원, 한국통신 표준과금)는 선납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통신료 선납금은 20만원이며 이는 사찰이 모바일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1건당 30원씩 삭감된다.

①현대불교에 전화주문
②우편으로 CD 받기
③안내문 따라 설치
④지우커뮤니케이션에 전화해 인증받기(02-365-5933)

기존 DB도 자동 업데이트

기존의 종무관리 프로그램과 연동된다는 것도 '상황'의 장점이다. 기존의 종무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은 자료들은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자료입력의 수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성능 또한 기존 종무관리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기능과 모바일 알림 기능, 그동안 구현되지 못해 애를 먹었던 DM발송기능의 글자크기조절, 종횡변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종무관리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격에서도 기존 프로그램들이 처음 구입 시 백만원 이상의 목돈이 들어가고 월정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과 달리 무료이기 때문에 사찰 재정에 부담도 없다. 특히 거액을 들여 산 기존 프로그램은 다시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는 한 2대의 컴퓨터에 나누어 쓸 수 없었으나 '상황'은 종무소와 주지스님 방의 컴퓨터에 모두 설치해 종무를 볼 수 있다. 무료이기에 흑시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기우에 불과하다. '상황'은 인터넷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종무프로그램과 연동
사찰용품 싼값 공동구매도



◇상황종무관리의 모바일기능 개념도.

업무줄고 법회출석률 늘듯

매일매일 불교계의 뉴스를 보고 각 종단의 공지사항을 신속히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상황'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서비스다. 기존 프로그램은 온라인 연결이 되지 않아 단순히 종무소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불과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사찰 종무소에서 '상황'을 클릭하면 첫 화면에는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일간신문 붓다뉴스의 기사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당해 사찰이 속해 있는 종단의 소식 등 불교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아침마다 불교계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불교정보를 찾는 시간 낭비를 이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상황'을 사용하고 있는 사찰들은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의 소식을 나눌 수 있고, 사찰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싼 값에 공동구매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면의 활용이 가능하다.

사찰 종무프로그램으로 '상황'을 사용하고 있는 세등스님은 "처음 핸드폰으로 신도들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사찰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며 "핸드폰으로 법회나 불사 안내 등 사찰 행사를 알리니 우편을 이용했을 때보다 우편료와 업무시간이 단축되고 신도들의 법회 참석률도 3분의 1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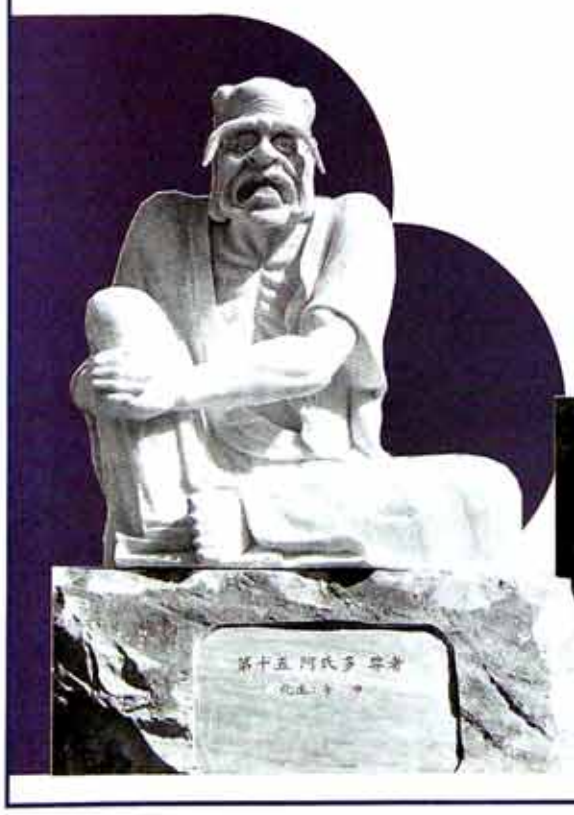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a.com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 korea buddha co 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8동 1653-6 세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雪山玉佛

釋迦世尊[illegible]成道[illegible]
雪山玉石[illegible]玉造成[illegible]圓滿
[illegible]慈悲智慧[illegible]
[illegible]其足[illegible]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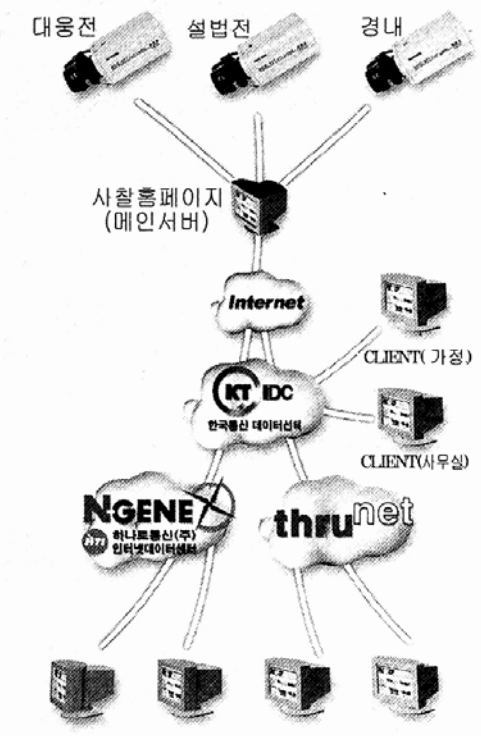
집·사무실서 산사예불 동참

스님법문·각종사찰행사 등
e-eye 시스템 실시간 전송

"법당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우리 절 스님들과 함께 아침저녁 예불을 봉행할 방법은 없을까?"

"말도 안 된다"고 핀잔 받을 소리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현실로 만들어 준다. 사찰에 설치된 CC TV와 사찰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영상 기능을 연동하면 CC TV가 촬영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웹 데이터 뱅크사(대표 김대신)가 자체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컨텐츠 전송 서비스(CDN, Content Deliver Network)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최적화해 전송 속도와 화질의 고품격화를 이룬 시스템이다. 사찰, 공공장소, 유치원 등 현장의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전송케 한 것이 '이 아이 시스템(e-eye system)'. 인터넷상에서 서비스 되는 대다수 동영상은 화상이 멈추거나 이지러지는 경우, 오디오와 비디오가 따로 돌아가는 경우 등을 자주 겪게 된다. 이 같은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고 TV를 보는 듯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주)웹 데이터 뱅크사의 기술은 이미 인터넷 교육방송(ebs.co.kr)과 sbs(sbs.co.kr)의 TV다시보기 등 컨텐츠의 관리대행에서 확인 된 바 있다.



◇사찰홈페이지 동영상의 실시간서비스 개념도.

(주)웹 데이터 뱅크사는 3월부터 불교계에 본격적으로 '이 아이 시스템'을 홍보하여 사찰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찰이 '이 아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다. 우선 불자들이 사찰의 현재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부득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법회에 동참 할 수 있다. 물론 오디오 서비스도 가능해 법당에서 설해지는 스님들의 설법도 들을 수 있다. 사찰 홈페이지 관리자가 법회 내용을 녹화해 VOD로 변환, 홈페이지에 올리면 다량의 법회 DB를 구축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의 하나.

사찰에서 CC TV로 주요 성보를 촬영하도록 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세계의 네티즌 모두가 성보를 지켜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법회 등 주요행사를 실시간 방송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영상물을 서비스 할 수 있으며 각종 행사별 동영상 보기 서비스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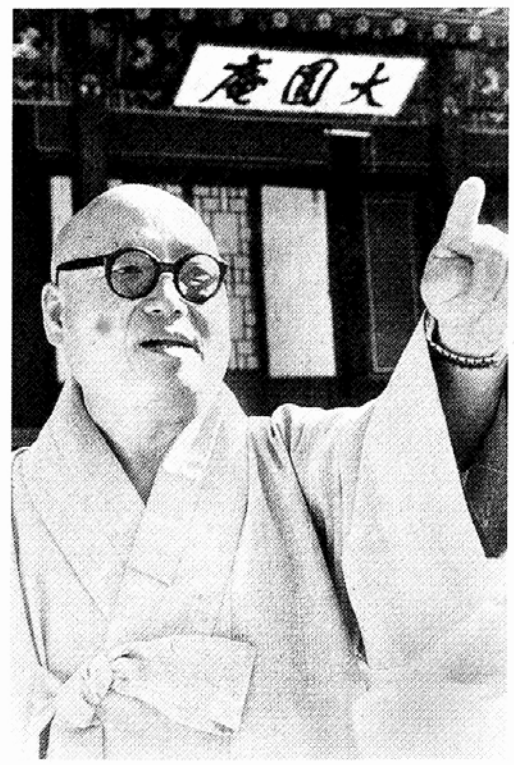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 '이 아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주)웹 데이터 뱅크사가 설치하는 최고급의 서버를 통해 기존의 컨텐츠들도 보다 향상된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에도 기술적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아직 홈페이지를 개설 하지 않은 사찰의 경우 (주)웹 데이터 뱅크사의 기술진이 제작하는 고품격 홈페이지를 보유하게 된다.

(주)웹 데이터 뱅크사는 '이 아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찰의 경우 해당 사찰의 이미지와 독경, 예불의식 등을 접합한 화면 보호기를 제공해 컴퓨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찰을 만나도록 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탄허스님 인터넷으로 친견

저술·일화·사진자료등 망라
본사, 홈페이지 7월 오픈



◇tanheo.or.kr은 탄허스님의 모든 것을 알수 있도록 구성된다.

탄허 스님(1913~1983 · 사진)을 만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제작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도서출판 교림(대표 서우담)이 공동 제작, 7월부터 본격 공개하게 될 tanheo.or.kr 은 탄허 스님이 남긴 방대한 저술은 물론 각종 일화와 사진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탄허 스님이 남긴 저술과 경전현토 및 번역서는 수십 종에 달하지만 아직 다 출판되지 못한 상태. 거기에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 소장하고 있는 원고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tanheo.or.kr은 탄허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자세히 알리고 그 가르침을 현창하는 목적 외에도 흩어진 탄허 스님 관련 자료를 모으는 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홈페이지에 '탄허 스님 시봉일기' '내가 만난 탄허 스님' 등의 코너를 마련, 탄허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제자들은 물론 인연이 깊었던 불자들의 허심탄회한 회고와 정겨운 이야기들을 담을 계획이다. 이 두 코너는 그간 묻혔던 탄허 스님 관련 일화들을 발굴해 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tanheo.or.kr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코너들은 다음과 같다.

▲탄허 스님 소개 : 탄허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글이 실린다.

▲사진 자료실 : 탄허 스님 관련 사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귀하다는 뜻도 된다. 이 코너에서는 탄허 스님의 족적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저술 저작 : 현재까지 출간된 탄허 스님의 저술 저작물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간략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관련도서 : 각종 저술 저작물 등 출간된 도서 안내 코너로 꾸며진다.

▲금석문 : 탄허 스님은 비문을 많이 지은 스님으로도 유명하다. 생전에 지은 각종 비문들을 통해 스님의 해박한 학문과 문장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묵향 : 달필이었던 스님은 어느 순간부터 글씨를 남기지 않았다. 스님의 글씨가 돈으로 바뀌어 진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라고 전한다. 그래서 현존하는 스님의 글씨와 그림들을 한데 모을 이 코너에서는 늘 높은 법향이 느껴질 것이다.

▲유적지 순례 : 탄허 스님의 출생지는 전북 김제 만경 평야, 바로 진묵대사가 태어난 곳과 인접한 곳이다. 이곳 출생지에서 스님의 열반처 오대산 방산굴까지 스님의 체취가 스며 있는 곳들을 영상자료로 만날 수 있다.

▲유물보기 : 누구든 칭찬하는 것은 즐겼으나 상 받기를 꺼렸던 스님은 입적 직후에 국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 훈장과 원고 20만매 이상을 집필할 때 사용했던 만년필, 염주 등의 유품과 월정사 보장각에 소장된 유품들을 볼 수 있다.

▲육성듣기 : 탄허 스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녹음테이프 수십개가 교림출판사에 보관되어 있다. 이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강지연 기자

사이버 공간에 '바둑선방' 생겼어요

대국하며 채팅
복기도 가능
유료회원엔
多面棋 혜택



◇붓다뉴스 바둑선방은 불자 누구나 참여해 수담을 나누는 편안한 곳이다.

포교인프라 구축
지역별 소모임 구성
동호회 활동지원
각종대회도 개최

사이버 공간에서 '기선일미(棋禪一味)'를 느껴보자.

붓다뉴스가 바둑전문 사이트 dashn.com에 '붓다뉴스 바둑선방'을 개설했다. 1월 24일 개설한 바둑선방은 불자라면 누구나 들어와 수담(手談)을 나눌 수 있는 곳. 대국을 하면서 채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복기도 가능하다. 바둑선방에서는 기보 자동저장과 회원 간 쪽지보내기 기능 등 dashn.com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즐길 수 있다. 유료회원(월 1만원, 1년 10만원)이 되면 프로기사 지도 다면기(多面棋) 참여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바둑선방의 회원은 무제한. 전국의 회원들을 지역별로 분류해 도 단위 혹은 시 단위 소모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스님들이 가입할 경우 스님이 지역의 지도법사가 되어 사찰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법회도 보고 친선대국도 즐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즉 바둑선방은 단순한 동호회 활동의 선을 넘어 바둑을 매개로 하는 포교인프라 구축의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초기에는 붓다뉴스 운영진이 시숍을 맡는 등 운영주체를 맡고 있지만 여건이 성숙되는 지역부터 지역단위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둑선방은 회원들의 친선도모와 바둑을 통한 포교의 일환으로 온라인 바둑대회 등 각종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바둑선방에 방부를 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붓다뉴스의 바둑선방 배너를 클릭하거나 dashn.com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보다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전사활' '프로사범 지도대국' 등의 부가 서비스를 받으면 기력신장이 빨라진다. 바둑선방 회원 가운데 유료회원이 20명 이상 되면 바둑선방 전용 대국마당도 분양받게 된다. 회원 가입 절차가 끝나면 dashn.com 초기화면에서 대국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재부팅 해 로그인을 하고 동호회코너를 클릭, 붓다뉴스 바둑선방을 찾아가면 된다. 주의 할 것은 붓다뉴스 바둑선방의 메인 화면에서 방명록을 클릭 해 자신의 이름과 ID,주소, 나이, 기력, e-mail 주소 등을 남겨야 바둑선방 회원으로 등록이 된다. (가입문의:시삽 임연태 017-236-5769, 02-722-4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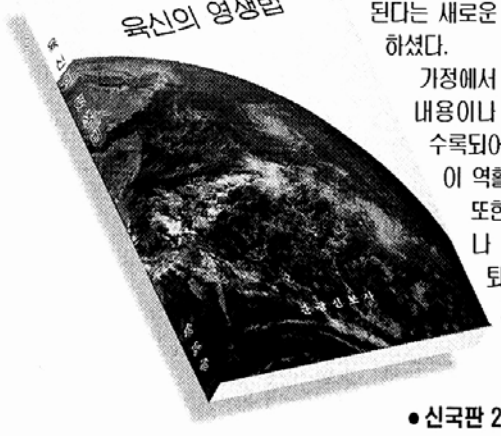
육신의 영생법

육신의 영생법은 장보승스님이 수십년간 수도 하시어 깨달으신 내용들을 서술한 신앙수기이다.

육체는 죽으면 매장하여 흙이 되거나 화장하여 한줌의 재로 변화여도 결국 흙이며 그 흙은 신체의 일부이자 지구이며 다른 식물의 거름으로 또는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동함을 설파하시면서 육신의 영생법을 알아야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도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가정에서 사십구재를 지내는 내용이나 방법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생활불교의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육체이탈 현상이나 악신을 물리치는 퇴마사로서의 경험담도 수록하였다.



● 신국판 260면 정가 1만원

● 연 락 처 : 031)532-6661 02)2242-1049 017)380-6661
● 계좌번호 : 농협 225070-51-054089 장석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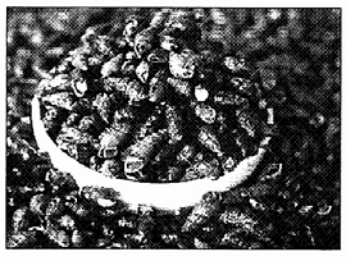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 슬 기

새롭다!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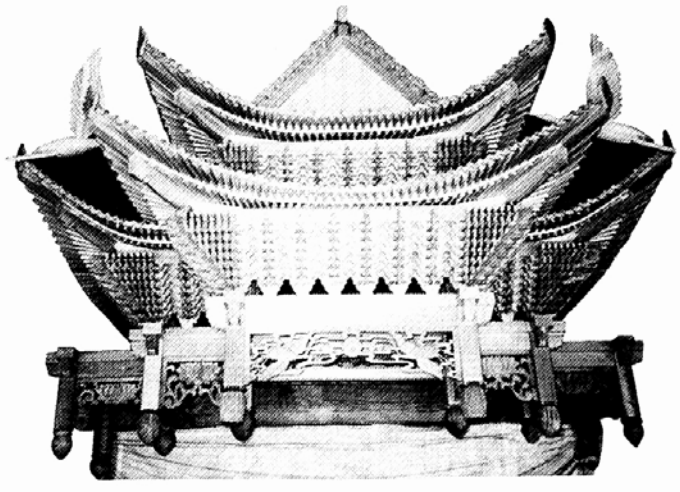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땀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누 리 공 방



불단 ·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7073(공방)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소외된 곳에 法雨를… 신문 법보시운동 함께 해요"

현대불교, 군법당 · 교도소 · 교정청 · 경승실 등 총 1,113개 시설에 매주 1,471부 발송 20일 현재

소외된 이웃과 사회를 지키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신문과 불서 보내기 법보시 운동에 동참합시다.

'현대불교' 보내기 법보시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대불교는 이런 취지로 97년 6월부터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되기 쉽지 않은 군부대나 교도소, 병원, 복지 및 해외교민 시설 등에 '신문 보내기 법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구좌 1천원으로 동참하는 신문 법보시 운동은 동참 시주자에게는 보시 공덕이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 하고, 시혜자에게는 귀한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공덕을 짓게 할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현재 현대불교는 군법당(400곳), 교도소 · 교정청(35곳), 구치소 · 감호소(12곳), 소년원 · 감별소(14곳), 양로원(25곳), 아동복지시설(26곳), 장애인복지기관(11곳), 청소년복지기관(16곳), 사회복지기관(148곳), 불교병원(10곳), 경승실(196곳) 등 총 1,113개 시설에 매주 1,471부의 신문을 법보시해 현재까지 총 32만5천여부가 발송되었습니다.



"군법당에선 신문이 소중한 수행지침"

일요일마다 불서 · 간식 보시 이무련 법사

"대중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군법당에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이 들어있는 현대불교신문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군법당을 찾아 불서와 간식을 보시하는 이무련(55 · 은평구 녹번동) 법사. 이 법사가 군법당 후원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98년. 대구 관음사 스님들과 함께 군법당을 찾은 것이 계기가 됐다. 시멘트로 불단을 만들어 불상을 모셔놓은 군법당의 열악한 상황을 본 이 법사는 지속적으로 군법당 후원을 하겠다는 원을 세운 것이다.

이후 이 법사는 14년 동안 매주 일요일이면 직접 구입한 책과 염주 그리고 간식거리를 들고 군법당을 찾는다. 이 법사가 단순히 '후원품 전달'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군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 부처님의 가르침도 전하는 법사, 수시로 독경대회와 찬불가 경연대회 등을 열어 무종교 장병들을 포교하는 포교사 역할까지 1인 3역을 한다.

군법당에 나오는 장병들 대부분은 군대에서 처음 불교를 접한 '초심자'들이다. 이 법사는 초발심을 일으켜 열심히 정진하는 군인들에게 불서 한 권, 신문 한 부라도 더 전하고 싶다며 "현대불교 법보시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군법당 용주사에 나온 장병들이 법보시로 들어온 '현대불교'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 5백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471부의 신문이 군장병 교도소 수형자 등 개개인 앞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2만5천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후원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법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자동이체는 고객부로 전화 신청하시고,
온라인 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법보시 후원 계좌번호**(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63	신한은행	324-05-007450
의환은행	150-13-120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하나은행	111-21647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한빛은행	082-090001-13-70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 **법보시 후원금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팩스(02)737-0697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구 분		발 송 처	보시 부수	보시 부수 누계
군부대	군법당	400	449	58,503
	국군병원	9	11	9,061
교화기관	교도소, 교정청	35	207	42,019
	구치소, 감호소	12	43	16,231
	소년원, 감별소	14	42	6,042
복지단체	양로원	25	25	5,501
	아동복지시설	26	26	8,976
	장애인복지시설	11	11	3,901
	청소년복지시설	16	16	5,442
	사회복지기관	148	148	46,838
	불교병원	10	62	14,722
경찰	경승실	196	196	54,458
	경찰병원	2	6	1,362
지정법보시	단체	149	169	32,877
	개인	60	60	19,720
총계		1,113	1,471	325,617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기관 · 후원자

간종흡 강갑순 강경중 강덕순 강동수 강만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원 강복복지관 강성옥 강수원 강숙희 강순영 강신욱 강신택 강영신 강옥구 강용희 강유미 강윤수 강은영 강인성 강인숙 강장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희 강정환 강종남 강지숙 강춘제 강태근 강태복 강태화 강현수 강현숙 강황진 경정경남지원 경순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순진 고영애 고영이 고우영 고용순 고은주 고재선고림선 고현사 공랑근 곽만엽 곽영호 구갑자 구본준 구영란 구은지 구진모 구진회 구진회 구팀회 구팀회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무상 권명수 권명희 권미경 권복연 권복자 권복현 권성행 권순 권순행 권순현 권연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석 권오홍 권오홍 권오진 권옥숙 권옥수 권윤중 권은경 권정숙 권진순 권차순 권효지 권춘순 기원정 김갑순 김경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애 김경엽 김경옥 김경해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숙(지인) 김광순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귀남 김규경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성 김기춘 김길옥 김길운 김나형 김남경 김남석 김남숙 김난영 김달순 김대현 김덕임 김덕자 김동자 김무영 김동남 김목자 김복인 김말선 김명덕 김명란 김명옥 김명자 김명희 김명희 김문자 김문홍 김문주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순 김미연 김미옥 김미정 김민수 김민옥 김범수 김병서 김병수 김병희 김병훈 김복남 김봉운 김봉태 김상덕 김상림 김상범 김상분 김상순 김서분 김서순 김석용 김석자 김선남 김선영 김선화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송자 김수영 김수희 김숙랑 김순경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령 김순식 김순옥 김순현 김순희 김승수 김승재 김승지 김식자 김신업 김애란 김애리지 김애자 김양순김여경 김연득 김연봉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미 김영배 김영범 김영심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옥 김영자 김영희 김예임 김옥 김옥경 김옥남 김완순 김외선 김용구 김용범 김용순 김용준 김용희 김용호 김원배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유하 김은관 김윤성 김은중 김은한 김은희 김은식 김은영 김희식 김인성 김인숙 김인태 김인희 김일중 김자경 김장복 김정덕 김정란 김정선 김정숙 김정애 김정숙 김정원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화 김종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종임 김종필 김주곤 김주식 김주원 김주현 김준빈 김준모 김준열 김준형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환 김진근 김창수 김현수 김춘자 김춘호 김춘희 김춘희 김치호 김태현 김태훈 김택곤 김한나 김현 김현수김현숙 김형창 김형희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호 김호영 김호종 김홍조 김희남 김희수 김희수 김희숙 김효석 김효숙 김희님 김희순 김희수 김희순 김희주 나관숙 나숙희 나순옥 남극원 남선자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수진 남원우 남정애 남혜수 남하자 노만호 노순님 노유택 노은택 노진희 노향순 노혜숙 덕성암 덕은회 덩형관 도호희 도재권 동사섭 류경흔 류봉수 류영란 류정님 류정오 류조명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목포지원 무명 문 명순 문병기 문상희 문선희 문숙자 문은조 문정숙 문정강 문정희 문필금 문필수 문형주 문희자 민병주 민병용 민복순 민성곤 민소영 민승자 민승식 민하식 민혜원 박강숙 박경남 박경래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애 박경희 박경환 박공수 박광용 박광호 박구숙 박귀님 박금숙 박기구 박기정 박길순 박남순희 박남옥 박내순 박단희 박대섭 박득수 박명희 박무순 박미경 박미정 박미정 박병주 박병주 박복지 박봉주 박분들 박상규 박상기 박서영 박선영 박성례 박성수 박성준 박성진 박세광 박수진 박숙경 박숙자 박순덕 박순특 박순애 박승희 박신근 박신영 박양원 박양자 박영석 박영수 박영신 박영애 박영주 박영준 박영진 박영희 박옥남 박옥이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은기 박은식 박은숙 박은주 박이형 박인선 박장미 박현채 박형렬 박재련 박재진 박정산 박정상 박정순 박정자 박정희 박정희 박종원 박종진 박종원 박주연 박주원 박주찬 박준영 박준형 박준호 박진주 박경환 박태수 박진현 박진환 박진자 박찬 장미순 박찬연 박찬혜 박청수 박청갑 박청자 박청희 박초봉 박혼자 박태규 박태수 박필천 박현순 박현주 박혜경 박혜원 박혜명들 박혜숙 박혜정 박혜진 박혜희 박형채 방금순 방명섭 방순희 방재은 배경숙 배광춘 배동큼 배명효 배병진 배복희 배성호 백순자 백연수 백은주 백현숙 백혜원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옥남 백유선 백현기 백혜원 법현스님 변미자변인택 봉사직원 봉원보시팀 봉원봉사팀 봉원봉사모인 본원신도 본원 영등포본원 부명 봉희웅 봉현주 부산신도회 부산지원사당5동법회 사랑방 상미옥 서경자 서귀연 서귀희 서덕교 서민자 서민희 서명선 서병학 서성 서부웅 서상조 서성희 서영주 서옥경 서춘희 서은아 서인교 서정숙 서정희 서은 서진 서춘건 서춘우 서태승 서혜란 석해 선우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섭리큰 성정수 성지석 성동환 성명숙 성묘경 성민자 성영보 성재영 성림제 성효승 소진임 손광자 손근화 손명숙 손문업 손미숙 손병희 손상림 손유선 손인아 손인화 손정숙 손정자 손진임 손혜숙 손희지 송경자 송광숙 송규한 송근장 송미숙 송미애 송병준 송복희 송성수 송승철 송숙 송연숙 송영근 송영애 송유정 송인영 송재인 송정구 송진재 신경희 신미향 신미화 신복순 신상균 신성례 신수호 신순애 신순희 신시균 신영준 신영칠 신은빈 신은진 신장재 신재달 신재원 신조현 신진임 신혁건 신혜숙 신혜옥 심광희 심근희 심능희 심단희 심만화 심묘희 심범희 심보희 심성미 심성애 심안희 심원희 심임묵 심정은 심주자 심현희 심희정 안성모 안순옥 안영근 안영선 안재연 안진후 암영애 양병덕 양석호 양세옥 양영애 양은숙 양의근 양점순 양정순 어종선 엄경숙 엄정임 여태순 영등포법회 오재헌 오동규 오두한 오막순 오명자 오미희 오병원 오선희 오세희 오송주 오순조 오승종 오영자 오영희 오주도 오주희 오진희 오창원 오창심 오청희 오현숙 오현자 오혜만 오혜희 오희숙 옥현식 완주원 왕수복 우금식 우동림 우상용 원신희마음 원정옥 유공수 유금지유미향 유선재 유양심 유은경 유인욱 유정심 유진옥 유춘자 유호성 육성희 육성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기현 윤미현 윤병항 윤병혜 윤상분 윤석범 윤성 윤순이 윤여현 윤영숙 윤영자 윤옥희 윤인지 윤재경 윤정연 윤재학 윤종숙 윤준상 윤지웅 윤지은 윤학남 윤향선 윤태원 윤향숙 윤현숙 윤경애 이강수 이경희 이경민 이경봉 이경숙 이경아 이경현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형 이광희 이교재 이구자 이군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환 이금순 이금주 이기오 이기형 이길복 이남심 이노마 이대섭 이덕희 이동기 이동준 이동희 이명규 이명수 이명순 이명자 이명준 이명훈 이명희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이번택 이범규 이병만 이병진 이보경 이복성 이복순 이봉순 이봉희 이부상 이분순 이삼경 이상란 이상옥 이상원 이석준 이선임 이성수 이성재 이송자 이수자 이숙희 이순교 이순덕 이순란 이순복 이순옥 이순임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승숙 이승은 이승훈 이신정 이신호 이아리 이애자 이영자 이영희 이예수 이연규 이연옥 이영경 이영린 이영미 이영숙 이영순 이영자 이예조 이옥색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용범 이우승 이은자 이희상 이유순 이은옥 이은숙 이은주 이은진 이외남 이익수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연 이정혜 이재국 이재숙 이재은 이재원 이제희 이정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희 이정혜 이정희 이종돈 이종락 이종석 이종성 이종숙 이종희 이준민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윤 이지헌 이진성 이진수 이진영 이진우 이진희 이창연 이창운 이창희 이창호 이창환 이현희 이희자 이희정 이희진 이희호 이희환 인천지원 임경희 임광자 임기정 임기환 임동근 임명희 임미경 임복남 임성옥 임성희 임순남 임순녀 임순덕 임은덕 임은희 임정숙 임정희 임종석 임종희 임지은 임지현 임지환 임진근 임창수 임혜수 임현숙 임현희 임혜경 임혜숙 임혜옥 임혜자 임혜정 임혜진 임혜택 임현동 장은채 제숙희 제주보흔원 조경숙 조경자 조경희 조규숙 조귀자 조남석 조남주 조동민 조명래 조명식 조미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조보국 조상호 조승근 조승우 조악식 조양자 조영자 조옥희 조은숙 조은호 조은미 조인규 조인자 조정현 조정훈 조철제 조현애 조혜숙 조혜연 주경숙 주영란 주우순 주인공 주현순 지경애 지로봉사모임 지순임 지연옥 지영희 지유미 지인희 지정인 진갑임진경상 진경수 진광원 진병웅 진영숙 진영희 진옥례 진유상 진원웅 진태영 진정임 차동호 차상환 차수원 차용옥 차정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천병길 천복연 천양우 천태경 현현숙 현화조 청주교도소 최경근 최경락 최경자 최경자 최경진 최광례 최금협 최만례 최명희 최맹순 최병도 최병언 최병조 최병준 최복내 최복순 최상희 최서윤 최석원 최선영 최성근 최성대 최성욱 최수현 최심월 최영도 최영명 최영정 최영숙 최은정 최은주 최이형 최인덕 최인숙 최인자 최재두 최재협 최정근 최정기 최정렵 최정은 최정미 최종대 최주현 최중석 최하규 최하우 최행규 박기순 김상규 김영순 최우수 최미현 최봉선 최현민 최현주 최형선 최호자 최효자 최희원 주희영 중남대교수불자회 취업과 취업과 교재선 태평남부 태국지원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미경 하미희 하석남 하선희 하성호 하순애 하순일 하은영 하재희 하정희 하정일 한경규 한경호 한국여성불교 한기선 한마음사랑방 한마음선원 한명수 한미순 한방근 한병조 한상현 한숙희 한순예 한순옥 한순자 한승천 한이름 한양자 한영옥 한영천 한은경 한임변 한정석 한천희 한효영 한혜원 한효리 함광전 함평점 함평지서 함명이 함산수 한명숙 한지은 허명희 허상인 허석남 허선숙 허성곤 허수자 허승자 허희숙 허재순 허명옥 허정은 허진우 허현정 현순옥 현화연 현희숙 현보심 현주월 혜월당 호소희 홍경숙 홍기정 홍명숙 홍미자 홍병숙 홍소순 홍순이 홍순임 홍영순 홍영호 홍인자 황경숙 황금희 황기웅 황노월 황순심 황영년 황옥련 황옥선 황옥순 황인형 황점숙 황창영 황태영 회대숙 회덕내

불서 법보시 합시다

현대불교신문은 신문 법보시와 더불어 도서 법보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동안 불서가 필요한 단체에 자체적으로 도서 법보시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도서 법보시를 정기적으로 확대하여 불서가 필요한 단체에 고루 부처님의 법음이 전달되도록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도서 법보시에 동참하고자 하는 불자 및 단체의 참여와 받아보시기를 원하는 단체의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 **도서 법보시 동참자 모집**: 개인 및 단체가 보관중인 불서의 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소중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불서가 필요하신 단체 접수**: 부처님의 말씀이 필요한 단체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책방 여시아문 대표(02)737-0695 팩스(02)737-0696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주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몸속의 독을 해독시켜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몸속의 환경호르몬(독소)의 축적은 칼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공포로 다가오며 생명을 단축시킨다. -

간 질 환	간염, 간경변, 지방간 등 간기능 저하 및 급만성 간질환
급만성위장병	급체 위장 장애는 그때마다 복용으로 치유되고, 만성은 1일 3회 정기적 3~12개월이면 신효한 효력 있음.
부 인 병	월경복통, 월경불순 2~5주 이상으로 치유
출 혈	혈치질, 비출혈은 3~5일 내외로 중지되며 1~3개월이면 원인적 치유됨
만성변비	투약을 조절하여 복용하지만(종합병원 임상 99%) 매우 심한 환자는 1회 3~15캡슐
알콜중독	2제 복용으로 특효. 술로 인한 제반 증상이 치료 또는 호전됩니다.
약물중독	급성약물중독자에 1~2주 복용시 제병상의 치료 및 후유증을 해소시켜 준다.
마약중독	경미한 중독자(1~2년) 24시간 OK, 경중한 중독자(2~5년 이내) 48시간 OK, 5년이상 중독자 72~144시간 OK
식 중 독	식중독 발병 30분 이내에 복용하면 99% 치유되며 24시간이 경과하면 80%까지 저하됨.
농약중독	쥐약에 중독된 개가 죽어갈 때 40캡슐 투약하면 15분이면 소생함.
연탄가스중독	중독시 40캡슐을 물에 혼합하여 복용 후 15분이면 회생하고 후유증 없음.



우리 몸의 독소가 만병의 근원
기적의 미라보타 플러스

만병의 근원인 우리 몸의 독소제거는 미라보타 플러스로!

특히, 술로 인한 간질환에 ……

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205
미라보타 플러스

쇼트트랙 금메달 고기현, 은메달 최은경

모정불심으로 오륜쾌거

14일(한국시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각각 금·은메달을 차지한 고기현(16, 목일중)과 최은경(18, 세화여고)의 쾌거뒤에는 모정불심이 한 몫 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고기현 선수의 어머니 김미수 보살(43)은 이번 시합이 열리기 한 달 전부터 양양 낙산사, 순천 송광사 등 전국 10여 사찰을 참배하며 딸이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을 간절히 서원했다. 특히 경기가 열린 당일에도 어머니 김 보살은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을 찾아 딸의 선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소에도 서울 목동 집 한켠에 촛불과 정화수를 차려놓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김씨는 또 절에서 받아온 A4 용지 크기의 '발원문'을 벽에 붙여놓고 불경테이프를 고기현 선수의 방에 하루종일 틀어놓는 등 기도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어머니 김미수 보살은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 절에 다닌 영향인지 기현이도 항상 단주를 손에 끼고 다니며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말했다. 또 김보살은 "어려운 고비가 닥쳐도 온가족이 마음을 모아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메달에 집착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할 것을 기현이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고기현 선수의 가족은 모두 법명이 있을 정도로 돈독한 불자다. 대우증권 장안평 지점장인 아버지 고정식(42)씨는 '지송', 어머니 김미수씨는 '문수심', 고기현 선수는 '보리심'이다. 이 법명들은 15년 이상 다닌 인천 용화선원의 송담 스님이 87년에 지어 주었다. 용화선원외에도 고기현 선수가 연습이 없는날엔 가족 모두 서울 평창동 원각사도 자주 들러 법회를 보고 기도도 한다.

은메달을 목에 건 최은경 선수의 어머니 박수현(43) 보살도 딸의 선전을 기원하는 간절한 서원을 가슴에 새긴채 아침마다 집근처인 남양주 봉선사에서 새벽 불공을 올린다. 또 박 보살은 초하루와 지장재일 등에는 자양동 불심정사에 나가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자동차에도 항상 〈금강경〉과 〈천수경〉 등 경전 독송 테이프를 틀고 다닐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최 선수도 시합때면 항상 손에 끼여진 단주를 만지며 평정심을 유지한다. 또 최 선수는 국내외 각종 경기와 연습이 모두 끝나는 5월이면 영주 부석사와 대구 삼보사 등으로 사찰 순례를 떠나 심신의 피로를 녹인다고 어머니는 귀띔한다.

어머니 박수현 보살은 "올림픽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해준 은경이가 자랑스럽다"며 "아직도 시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은경이의 선전을 위해 계속 사찰에 나가 부처님께 기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쾌거를 이룬 고기현과 최은경 선수가 볼자라는 것이 알려지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고기현 선수의 목동집과 최은경 선수의 남양주 집에 각각 축하난을 보내 격려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10여 사찰 순례 딸 선전 기원
정대스님 축하난 보내 격려



◇쇼트트랙 여자 1,500m서 각각 금, 은메달을 차지한 고기현(오른쪽)과 최은경이 14일 시상대에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꽃다발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



◇금메달리스트 고기현 선수의 어머니 김미수 보살이 평소 다니는 서울 평창동 원각사 미륵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대형만다라 25일까지 전시

서울 봉은사가 지난 10일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를 상징하는 세로 7m에 가로 5m 크기의 대형 만다라(팔상성도 중 일부)를 경내 법왕루 사천왕 전시관 외벽에 설치, 25일까지 전시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국립공원 15대 개혁의제 정부등 300여단체에 전달

17개 종교환경단체 선정

17개 종교 환경단체가 2002년 실천 15대 의제를 선정, 국립공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공동대표 원택스님)는 4일 100대 개혁의제 중 5대 핵심의제, 2002년 실천 15대 의제를 선정하여 국회 환경위원회, 환경부, 민주당 등 300여 정부기관 정당 사회단체에 전달했다.

제도개선시민위원회가 발표한 핵심의제는 △국립공원 관리 적정예산 산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검토 △신규 국립공원 추가 지정 △국립공원 전문 관리기구 설치 △지정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법 제정 등이다.

또 2002년 실천의제는 △야생동 식물 채취 및 포획 금지 △역사문화유산 조사 △시설 설치 시 경관 미관 심의제도 도입 △불빛 소음 등의 제한 △생태 문화탐방 지속적 지원 △공원관리청에 사법권 부여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공단 임원진의 친환경인사 선임 △입장료제도 개선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식 및 영역 재정립 △거주 주민의 친환경적 생활 지원 △의제 실천 논의기구 구성 등이다. 김원우 기자

지방문화재 20건 보호

울산시가 동축사 3층 석탑 등 20건의 지정문화재에 대해 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5필지 16만1845㎡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14일 고시했다. 시유형문화재 11호인 동축사 3층 석탑은 6필지 1천909㎡가 지정됐다. 여수령 기자

첫 비구니수계 싸고 논란

태국 성직자법, 여성에 정식자격부여 인정안해

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수계식이 열렸으나, 비구니계 수계 유효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다.

태국에서는 불교 최고기구인 상카 위원회가 1928년 여성의 비구니계 수계를 금지했고 1992년 제정된 불교성직자 법에도 여성이 정식으로 승려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태국의 사미니격인 '매치'를 9년간 봉직해온 와랑카나 와나위차얀(56) 스님은 지난 10일 방콕 근교의 사찰 송타마칸야니에서 스리랑카,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온 비구니 8명과 태국 비구 6명, 티베트 비구 2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구니계를 받았다. 현재 한국, 스리랑카, 대만, 중국, 홍콩 등에서는 비구니 계맥이 있지만, 태국 여성으로 태국에서 비구니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태국에서는 현재 외국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스님 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해 2월 태국 타마삿 대학의 불교철학 교수출신인 찻수만 카빌싱(42)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받고 돌아오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현재 태국 사찰에서 일종의 사미니격인 매치로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도 1만명에 이른다.

태국 교육부는 비구니계 수계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스님들로부터 계를 받았기 때문에 태국 승단에 소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경 기자

"개신교 배타성 탈피해야 종교 화합 이룰수 있어"

김경재 크리스챤 아카데미원장 주장



◇김경재 원장

개신교의 배타성을 자기 성찰 차원에서 지적하고 이를 통해 종교화합을 모색하는 연구 논문이 개신교 신학자에 의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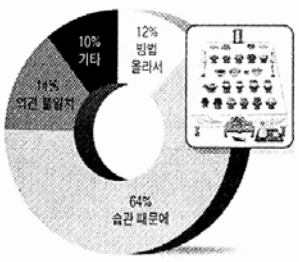
김경재 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한신대 신학과 교수)은 최근 발간된 〈신학연구〉 제42호에 발표한 논문 '종교간의 갈등 현황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종교적 갈등은 극도의 배타성을 지닌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자주 일어난 훼불, 사찰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개신교 목회자와 신도들의 태도 변화가 종교화합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개신교의 자기 성찰을 촉구했다.

1990년 현대사회연구소가 조사한 '우리 나라 종교지도자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다른 종교는 철저히 배격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개신교 목사가 응답자의 30.5%로 나타나 스님(3.0%)에 비해 10배가 넘었다.

개신교가 강한 배타성을 띄게 된 이유로 김 교수는 197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교회 성장론'이 종교간 대화나 협력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권형진 기자

불자의 생각

불교식 차례상



붓다뉴스가 명절 차례상을 주제로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 100명 가운데 89명(89%)이 지난 설에 유교식 차례상을 차렸다고 답했다. 그간의 습관 때문이라는 답이 지배적이었다(64명 64%). 방법을 몰라서 유교식으로 차릴 수밖에 없다고 답한 사람이 12명이어서 불교식 차례상 차리기를 홍보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된다. 또 불교식 차례상을 차리는데 가족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고백도 14%(14명)나 됐다.

풍습때문 머뭇…82%가 "차리고 싶다"

향후 불교식 차례상을 차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2명(82%)이 그렇다고 답했다. 종무기관이나 사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불교식 차례상 차리기를 권장하여 불자로 사는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임연태 기자

활인(活人) 천역(天役者)자 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

명예와 양심을 걸고 역학사(易學史)에 한 획을 긋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오행을 모르는 분을 위해 오행에 능통한 분을 위해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썼습니다. - 효 사 -

세태 (世態)는 구체적이고 즉시적인 영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묻기전에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매시간마다 적혀 있어 거기에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의 자세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육임은 신통(神通)한 학문으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아나 접근이 어려워 덮어버리기 십상인데, 그것을 쉽고 빠르게 활인천역자용으로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낮 사(巳)시 (9:32 -11:32 :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칸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만하면 다 맞게 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고 또 적중하는 것입니다.

1. 운세판단 :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수법가부 : 천도 시식 굿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래방목적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러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4. 정황판단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초사(初辭) : 문에 들어서자 말자, 전화 오자말자, 가서 만나자 말자 때뜸 내쏠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6. 모망가부 :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보고 말해줄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이해득실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를 즉시 판단 하여 말해 줄수 있게끔 써 놨습니다.
8. 선악구별 :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아타발동(我他發動)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원근사 여부 :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미기사(未旣事)여부 :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12. 일의 과정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이 시작·중간·결과로 나뉘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귀신침범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칸에 다 써 놨고, 그 귀신을 제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 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쟁터에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밝힐 수 있는 비법으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14. 산소탈 여부 : 지금, 누구 산소에서 달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쏴부칠 수 있도록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조부, 조모, 부친, 모친, 형제자매, 숙부, 외조부, 외조모 장인, 남편, 아내, 낙태아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15. 사승여부 :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띠만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든 띠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가상길흉(家相吉凶)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길방 :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 놨습니다.
18. 소송승패 :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수상 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9. 응기판단 :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혀 놓았으므로 이를 보시면 참으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20. 가해(加害) : 어디 방위에 사는 남·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21. 길흉성부단정항목 :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모망·공명·구재·구직·시험·혼사·임신·가정·이사·소송·질병·매매·출생·도난·심인·대인·상면·채용·투자·승부·가격·경작·묘지·기후
22. 연명상신법 : 뒷면에, 그 사람 띠만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빈한지사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등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한글판 「육임1년 신수비결」 출시

1년 중 어느 날이든 그 날과 온 시간, 전화해 온 시간, 가서 만난 시간, 또는 그 사람의 띠만 알면 출생 년월일시가 필요없이 1년 12달의 길흉성부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쉽고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신수 책은 영영세세 두고두고 보는 책이며 정확합니다.
이 책을 능가하는 신수 책은 없습니다. 어떤 오행술도 육임의 정확도와 과단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육임은 신시(神示)로서, 스님이 말씀하면 법력(法力)이 되고, 신명제자가 말씀하면 귀신(鬼神)이 되고, 오행가가 말씀하면 도력(道力)이 됩니다. 감히 자신있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 칸칸마다에 시간별로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빼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이 오든, 전화가 오든, 가서 만나든 몇 시로 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와도 모두 다르게 구별 할 수 있도록 다 적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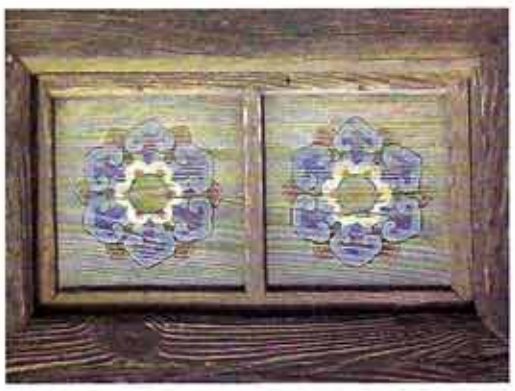
● 전 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광 ● 주문전화 : (02) 993-8680
● 입 금 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복문 ※ 각종 카드로 장기 분할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부록 · 비디오테이프 포함
₩1,300,000원 (일백삼십만원)

마음을 적셔주는 '영혼의 쉼터'



◇직지사는 잘 가꾼 정원같은 가람이다. 우람한 고목 사이사이로 배치된 전각들은 자연과 한몸을 이루며 지친 영혼들의 쉼터가 된다.



그 절에 가면 — 황악산 직지사

정원같은 가람…역사 격랑속 부침
수련원, '리틀붓다' 年 4천명 배출

아란야(阿蘭若)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어(梵語) aranya를 음역한 것으로 '절'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잣거리에서 적당히 떨어져 스님들이 수행하기에 알맞은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안이라는 것도 사물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벽면의 모자이크 벽화와 같이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으로 짜여진 우리네 삶을 성찰하는 데 '적당한' 거리는 더더욱 긴요한 것이겠지요. 출가가 도피의 수단이 아니듯이, 절 또한 적당히 현실에서 떨어져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절은 (동네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가 봅니다.

누구나 가끔씩은, 도무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마음' 연못 속에 물고기처럼 풀어 놓기 딱 좋은 절이 직지사입니다.

전각 자연과 잘 조화

직지사는 잘 가꾼 정원 같은 가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꿈은 인위적 노력의 소산이 아니라, 고목에 둥지를 튼 새처럼 자연이 허락한 곳에만 전각을 배치한 사려깊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눈에 다 펼쳐 보이면서도 다소곳함과 은근함을 잃지 않는 것도, 그윽한 계곡과 우람한 수목들의 어우러짐이 베푼 은덕입니다.

직지사의 이런 아름다움은 황악산의 웅숭깊음에서 비롯됩니다. 둥두렷 솟아올라 멋들어지게 접은 산주름을 우아하게 펼쳐 내린 곳에 자리잡음으로써, 산지에 있으면서도 평지 가람의 시원함과 평온함을 얻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발길을 허락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지킬 수 있음도 다 황악산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를 펼쳐 놓고 남한의 가운데 부분에 눈길을 주면 거기에 황악산이 있습니다. 황악산의 황(黃) 자가 곧 다섯 방위 중 가운데를 가리키는 색이니 직지사는 또한 이 땅의 심장에 해당하는 가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지사는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곧장 마음으로 들어가야 할(直指人心)' 절입니다.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옛날 아도 화상이 선산의 도리사를 창건할 때, 황악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산에도 '큰 절이 들어설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라에서는 아직 불교가 공인되기 전인 눌지왕 2년(418)의 일이니 직지사의 역사는 이 땅의 불교 역사와 고스란히 겹치는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직지사는 역사의 격랑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고찰의 옛스러움을 많이 잃고 말았습니다.

창건 이후 직지사는 신라 선덕여왕 14년(645)에 자장 율사가 중창하였고, 고려시대에는 태조 19년(936)에 능여 대사가 크게 중창하여 동방제일도량으로 이름을 떨치며 수많은 고승 대덕을 배출하였습니다. 조선조에 들어서도 여러 차례 중수가 있었으나 임진왜란의 병화로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버렸습니다. 다시 선조 25년(1602)부터 70년에 걸쳐 다시 일으켰으나 순조 5년(1805)부터 기울기 시작하여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1966년부터 대규모의 중창불사를 벌여 전각의 수만도 65동에 이르는 대가람으로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주요 건물로는 영조 11년(1735)에 중건한 대웅전을 비롯하여 300여 평 규모의 천불선원, 천불 가운데 고추를 드러낸 탄생불과 첫 눈을 맞추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을 간직한 비로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직지사는 사명당 유정(1684~1752) 스님의 출가 도량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직지사는 분명 새로운 절입니다. 하지만 가람의 노송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 정신 만큼은 변함없는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푸르름은 내일의 한국 불교에 끊없는 생명력을 불어넣을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입니다.

사명당 출가도량

직지사는 열린 도량입니다. 가람의 외양도 그러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정신도 그렇습니다. 한 예로, 종교를 불문하고 영혼의 휴식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숲 속의 빈터 같은 여백을 만들어 주는 '수련원'은 한 해 4천여 명 정도의 '리틀 붓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안거에 들어간 천불선원에서는 25명의 수좌들이 황악산과 함께 화두 삼매에 빠져 있습니다. 먼발치에서라도 그 기운을 느껴볼 양으로, 능여계곡이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는 천불선원 곁에 서 봅니다.

풍경 소리를 대신한 계곡 물 소리, 머리 속 지든 때를 말갛게 씻어 주는 것 같습니다. 능여 대사의 장군죽비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부다피아 카드 회원들에게만 드리는 동국대학교 의료원 진료비 할인 혜택 시행



부다피아카드회원만의 특별한 혜택

1.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 5개 양·한방 병원에서 진료비 및 종합검진시 5~20%까지 할인
▶감면대상 병원 - 동국대의료원[경주병원, 포항병원, 경주한방병원, 분당한방병원, 강남한방병원]에서 1월 17일부터 시행 중
2. 타종단 신도님들도 부다피아카드로 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5만원이상 구매시)
4. 주유할인 서비스(S-OIL)
5. 무료보험 서비스 - 유일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뺑소니안심보험
6.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7. 스피드카드론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 은행에나 기타 카드대리점 접수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0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없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생명나눔천화, 소년소녀가정,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근검절약 모으스 병원 등 부처님의 법등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뜻을 받들어 가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